

**금주의 기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떠나온 모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섭리하심에 따라 보존되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라 여호수아 23장 3절

### 공공성 가진 신앙인들의 결단 “대한독립만세!”

#### ①3.1운동정신으로 풀어본 한일 무역전쟁과 대안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잇따른 경제 보복조치에 반일운동이 겹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일반 시민 뿐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자매도시와 교류를 끊는 등 반일 운동에 나서고 있다. 현 상황을 '기해왜란(己亥倭亂)'으로 규정하고 일본에 맞서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은 '신 독립군'을 자처하며 분노를 표출한다. 시민들의 분노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며 격화됐다.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처럼 경제 분야에 한정되던 반일 운동은 이제 사회·문화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독립 운동을 못했지만 불매 운동에는 동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언론 보도나 SNS, 유튜브를 통해

선명하게 투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렬한 분노의 바탕에는 과거사에서 비롯된 정서가 있다고 분석한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제 손으로 이루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이 반일 감정으로 표출되고 있다", "기해왜란"과 '신 독립군' 같은 단어는 시민들이 일본의 경제 제재를 국가 간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과 함께 "반일 운동은 광복절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을 정도다. 본지는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①3.1운동 정신으로 풀어본 한일 무역전쟁과 대안 ②세계 언론이 보는 지금의 일본 ③크리스천이자 존경받는 일본인 학자가 일본 대신 전하는 참회록을 차례로 실는다(편집자 주).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두고 온 "모국"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인 일본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바짝 일본 턱밑까지 쫓아온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처럼 보이지만,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아직도 과거의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https://youtu.be/t-iRxtDW3bo>). '살아있는 갈대들의 목직한 전쟁'이란 제하로, 손석희 앵커는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 증가, 탕빈 유니클로 의류 매장 그리고 팔리지 않는 일본산 맥주로 상징되는 "NO More 일본, NO 아베"라는 운동이 살아있는 갈대와 같은 여의도 정치와는 상관없는 보통 한국인들이 벌이는 목직한 전쟁이라고 브리핑해준다. 국운이 다해 한일합방으로

가진 길목인 1907년, 살아있는 갈대들은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차관을 제공해 한국의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고자 획책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이 운동은 상공인과 지식인부터 백정과 걸인, 기생, 심지어 도적까지 온 민초들이 나서서 나라 빚 1300만원을 갚기 위해 힘을 모았다(발기인 등 지도자들이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주도면밀한 방해공작으로 성공

### 이민자 증오/혐오 발언, 대량학살 확대일로!

#### 허핑턴포스트, 총격범이 테러지전 올린 '선언문' 공개

지난 3일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패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최소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이 범행 직전 히스패닉을 겨냥한 공격이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Ti Paso Shooting Suspect May Have Shared Anti-Immigrant Manifesto Before Attack: Authorities are investigating whether the suspect expressed hatred for Hispanic immigrants in a four-page document published hours before the massacre).

브리핑에 나선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19분 전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극단주의 온라인 사이트 8chan에 게시된 네 쪽짜리 문서가 맬리스 인군 출신 백인 남성 용의자 패트릭 크루시어스(21)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수사당국은 이 문건을 총격범이 작성한 게 맞다고 발표했다.

크루시어스는 이날 늦은 오전 엘패소의 월마트에 진입해 쇼핑객과 직원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CCTV 화면에는 한 남성이 긴 총기를 들고 건물로 들어서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선언문은 대규모 공격을 "히스패닉의 텍사스 점령(invasion)"에 대한 대응으로 묘사했다. "내가 아니라 그들이 선동자들이다." 이 문건에 적힌 말이다. "나는 점령이 가져온 문화적, 인종적 교체(replacement)로부터 내 나라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지난 3월 뉴질랜드 크라이

스트처치의 모스크 두 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51명을 학살한 범인에게 영향을 준 백인우월주의적 '대교체(Great Replacement)' 음모론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며칠 뒤 남부 멕시코 국경으로 "온갖 종류의 범죄가 들어오고 있다"며 "점령"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사람들은 점령이라는 단어를 무척 싫어하지만, 그게 바로 점령이다."

19-20세기 미국에서는 백인우월자들이 이민자들에 의한 "점령"을 언급하며 공포를 부추겼던 역사가 있다. 아일랜드인, 중국인, 일본인, 이탈리아인, 유대인, 슬라브인, 남아메리카인 등의 이민자 집단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번에 온라인에 게재된 문건의 대부분은 인종주의적, 외국인 혐오적, 반(反)이민적 수사들로 채워졌다. 허프포스트는 이 문건을 확인했으나 관련 링크는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 (4면으로 계속)

|   |   |   |
|---|---|---|
| <br>시론<br>최해근 목사<br>3면 | <br>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br>손상웅 목사<br>7면 | <br>아르헨티나 희년 축제<br>16면 |
|---|---|---|

ATS 와 ABHE 경회원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213) 38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http://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월드미션대학교**

# 글로벌 리더십

1. 글로벌 사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리더십 역량을 개발한다.

2.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이해하고 아우르는 글로벌 리더십을 훈련한다.

3. 글로벌 이슈들을 종합적인 맥락에서 다루으로써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한다.

**가을학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213)388-1000  
[www.wmu.edu](http://www.wmu.edu)

석사과정 Master of Arts [Theology] in Global Leadership





발행인 칼럼

뭣이 중헌디?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가수 조영남씨가 부른 번안 가요가 있다. 제목은 "물레방아 인생." 그 가사는 이렇다. "세상만사 동글 동글 호박같은 세상 돌고 돌아 정처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기웃기웃 구경이나 하면서 밤이면 이슬에 젖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여기에서는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정처없이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다고 설문 조사를 해보면 건강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이다. 사실 건강을 잃으면 제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다. 그 밖에 중요한 것들을 꼽으라면 돈이나 가족 같은 것들이 설문 조사의 상위그룹에 속하리라.

여름을 맞아 많은 교회가 단기선교에 나선다. 현장에서는 짧은 선교 시간이지만 준비하는 과정과 선교지에 오고가는 시간들 가운데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나 결과마저 짧은 것은 결코 아니다. 선교 현장에서 밟아지는 갈등, 영적 전투의 긴박감, 작게나마 확인되는 열매의 기쁨들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은 단기선교의 예외 없는 이야기꺼리이다.

올해 단기선교를 카작스탄과 키르기스탄에 다녀왔다. 카작스탄 알마티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네 시간 가까이 걸린 키르기스탄으로 이동하는 차에서 혼자 나즈막이 불렀던 복음찬송이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위에 이 몸이 상할 찌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길길 다가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 찌라도~~~" 그 차 안에서 미약하지만 오늘은 이곳 카작스탄에서 내일은 저곳 키르기스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하니 모든 피곤함이 물러가고 남모름 뿌듯함이 물러왔다.

누군가 "뭣이 중헌디?" 라고 내게 물었다면 그 버스 안에서는 주저 없이 답했으리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 버스 안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한 사람은 없었지만 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있었다. "나는 단기선교를 독려도 하고 참여도 하지만, 그리고 늘 선교의 우선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선교적 삶을 살고는 있는가?" 선교적 삶이 없는 선교는 그것이 장기선교이든 단기선교이든 위선이다. 자기만족을 위한 퍼포먼스(performance)에 지나지 않는다. 삶 자체가 선교여야 한다. 삶이 복음이고 복음이 삶이 아니라면 누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가지고 자기의 익숙했던 삶을 바꾸겠는가. 바꾼다하여도 실망한 그 전도자 때문에 그의 변화는 오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람의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도자의 행실이나 전도 받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행하심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말고는 다른 방법을 이 땅에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카작스탄에서 키르기스탄으로 가는 초원길에서 소떼들을 보았다. 그러다가 버스가 어느 시내도로를 통과하는데 그 도로 사이를 과감히(?) 걷는 소떼들도 보았다. 해가 누웠누웠거지라 소들이 자기 집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한다. 그들의 낮은 어엿음까? 말을 타고 그 소들을 몰고 다니며 먹이기도 하다가 저녁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애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말을 타고 그 일을 한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차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멋지게 보이느냐 아니냐가 아니었다. 소떼를 잘 먹이고 잘 몰아가다 마침내 집으로 잘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네 인생 가운데 뭣이 가장 중헌디?" 누군가 묻는다면 무엇이랴 답하겠는가. 버스 안에서만 아니라 버스 밖에서도 동일한 대답이어야 한다.

공동체로 '사는' 법 터득해야 공동체가 형성된다!

스몰그룹스킴, 소그룹사역전문 마이크 맥 목사의 관계맺기 소그룹 사역원리 소개

마이크 맥(Michael C. Mack)은 처음으로 참석한 소그룹 모임에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새로운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지혜를 바로 소그룹 모임에서 얻었다(How church leaders can move from "meeting" in community to "living" in community). 그는 신시내티 크리스천 대학에서 스몰그룹 사역과 제자도를 가르치며, 유명 출판사(Standard Publishing Company)에서는 편집을 담당하기도 했다(http://smallgroupleadership.com).

모든 일은 주후 313년에 시작됐다. 초대 교회는 날마다 서로 격려하면서(히3:13), 매일 공동체에서 살았다(행2:46). 신약성경은 당시 교회의 관계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평안할 때나 박해가 심할 때나, 신자들은 늘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개종한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고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교회의 삶 또는 생활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그리스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식적인 교회 건물(바실리카)이 세워졌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교회'(관계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를 장소로 기반으로 한 모임 중심 중

터에게서 시작됐다.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들, 베드로, 바울,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알렉산더 캠벨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관계적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과연 어떤 리더를 세우실까? 나는 그분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관계적 교회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삶을 그분의 관계적인 나라-공동체로 사는 삶-에 헌신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지역 교회 사람들도 필요하다.

지역 교회 리더들은 본을 보임으로써 성경적 공동체의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관계 맺기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다. 당신이 교회 리더라면 기도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당신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그런 다음에는 시간을 들여 그 관계에 투자하라. 결국에는 이 관계가 발전해 소그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이 관계들을 당신의 사역 도구로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관계를 세우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세워주실 것이다. 오로지 관계 맺기에 집중하라. 친구들에게 안전을 밀어붙이지 마라. 당신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의 관계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방향을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움직여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면(그러면 당신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이



소그룹 조직보다 강력한 관계 맺기부터 출발 행동이 따르는 말, 진심으로 대하기, 가까운 친구 두기

교로 바꾸어놓았다. 이렇게 주후 313년에 시작된 변화는 오늘날의 교회에 상당 부분 남아있다. 모임 자체가 핵심 이슈는 아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처음부터 매우 중요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명령은 신자들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한데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문맥에 등장(하고 그 내용과 반드시 결부해서 살펴보아야)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24-25절).

맺는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공동체에서 모이는 방법을 배울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공동체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은 쉽지 않은 질문이어서, 이 짧은 지면에 완벽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오늘날의 교회에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시하고 싶다.

관계적 공동체의 본을 보인 리더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결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리

것이다. 이 말은 그저 "소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소그룹 참여는 강력하고 깊이 있으며 실제적인 관계를 세우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소그룹을 한다고 해서 리더가 관계중심 공동체의 본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나는 교회 리더들이 소그룹 조직보다는 강력한 관계 맺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믿

다, 그분은 이 관계를 사용해 당신을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 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우정관계를 언제쯤 성경공부 모임으로 발전시킬지 그 시점을 성령님께 여쭙라. 나도 소그룹을 하고 있다고 과시하기 위해, 또는 소그룹을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기존 지식 때문에 소그룹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라.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공공성 가진 신앙인들의 결단 “대한독립만세!”

(1면에서 계속)  
강대국의 이권 다툼이 판치던 당시 국제질서는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자격을 얻었던 일본 편이었다. 그러나 그 기고만장하던 일본이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는 외신 보도였다. 당시 일본은 3.1운동 초기 보도통제와 '프레임 조작'으로 관련 보도를 막는 데 그야말로 전력투구했다. 하지만 시간문제, 진실은 감출 수 없었다.

하기 위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기독교인들이 민족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현실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닌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 해결에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아는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일제 헌병대가 조사한 1919년 말까지 3.1운동 관계 피검자 종교별 상황에 따르면,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인

하는 동력이 됐다.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계획하고 적극 참여한 것은 권익 신장이나 권력의 헤게모니를 잡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민족을 위해 선두에 서서 자신을 희생하고 일제에 항거했던 것"이었다. 3.1운동 당시의 한국교회의 신앙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처럼 개인화되지 않고 공공성을 띄웠던 것이며, 복음과 정의의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여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송실대 기독교학과 김영안 명예교수는 "3·1운동과 한국교회, 개혁신학적 성찰"이란 글에서 "일본이 우경화하고 현명하지 않다고 아단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장 많아 3,426명으로 비종교인까지 포함한 총 피검자 19,525명의 17.6%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총인구의 1.5%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기독교인이 3.1운동과 관련된 피검자의 17.6%를 차지하고 이 대부분 과격행위자이기보다는 시위주동자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3.1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당시 1.5%의 기독교 인구가 20% 이상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3.1운동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과 맞물려 주목받아야만 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당시 기독교인만의 독특한 3.1운동 방법이다. 그것은 "억압자 일본인에 대한 적대와 폭력을 자제하고, 기도과 금식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유지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립할 것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자는 것"이었다. "(요일별) 말씀과 기도를 통한 3.1운동 참여는 기독교인의 독특한 것으로,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세계대전 말기에 동경대 지하실에서 군국주의 일본이 패망하기를 기도하는 독실한 기독교인 교수들과 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마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는 광복절 70주년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아와 순국선열추모비에 헌화하고 무릎 꿇고 사죄한 적도 있었다. 존경할만하고 용기 있는 일이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상 국회의장이 피력한 바같이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 혹은 퇴위한 일왕이(사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전쟁 범죄의 주범 아들이므로 "그분이 한번(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한 마디 하면(위안부 문제로 인한 갈등이) 깨끗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Willy Brandt)가 독일 나치의 폴란드 침공과 유대인 학살에 대해 모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것은 폴란드 국민의 마음을 풀어줘 폴란드와 독일이 다시 화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2015년 "나치 만행은 독일의 항구적 책임"이라고 유대인에 대한 사죄를 반복하면서 선진국의 품격을 나타냈다. 독일은 1952년부터 700억 달러 넘게 피해 유대인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면서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을 회피하는 일본 아베 정권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결론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없다.' 이러한 표현처럼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치유하기 힘든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숨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자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네웨 성에 가기를 싫어했던 요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보다 더 많은 일본인들이 있기에, 반드시 '회개'를 외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 시론

## 한·일 갈등과 교회를 바라보며



최해근 목사 (웅곡메리교회)

근자에 한일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철강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이 이씨 등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신일철주금이 배상을 하지 않자 2018년 12월 31일, 징용피해자 측에서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한국 국내주식에 대해 압류신청을 내었고 법원이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신일철주금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정부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965년에 맺어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본정부는 이 조항에 의해 한국인에 대한 전후보상(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 측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논리를 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법리적인 입장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1965년)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 일소공통선언(1956년)에도 한일청구권협정과 유사한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항으로 인해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과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이 미국과 소련을 대상으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본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국가는 '조약으로 인해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며 개인(일본인 원폭피해자와 시베리아 억류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본국가에 보상을 요구하지 말고 당사국 국가인 미국과 소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990년대 초 일본정부는 한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일 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그 후 10년 동안 일본 외교부가 발행한 문서에도 '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일관된 견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 경 전후배상 재판에서 일본정부에게 불리한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자 갑자기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어 전후보상 문제는 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일본 자국민으로부터 보상청구를 받았을 때와 그 반대로 일본이 타국인 피해자로부터 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을 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일본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의 변천'이라는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중적인 잣대가 오늘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전후 배상과 관련된 일본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은 일본 기업측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의해 피해를 당했던 중국에서도 일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998년 중국인 피해자 대표 5명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합니다. 1심에서는 청구시효인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본기업의 손을 들어줍니다. 반면 2심에서는 "현저한 인권침해에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원고측이 승소하게 됩니다. 결국 니시마츠건설은 3심까지 진행했고 2007년 4월, 일본 도쿄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에서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중국인 개인은 피해보상 청구권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니시마츠 건설회사가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문제는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의 강력한 반일여론이었습니다. 결국 2007년 10월 양측이 도쿄 간이 재판소에 화해신청서를 내었고 니시마츠 건설회사는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피해배상과 실종자들의 조사 및 기념비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5면으로 계속)



#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21회 정기총회

이민목회 현장에서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며 나아가 교회 연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해 주시는 미주 지역 모든 교회협의회와 목사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래와 같이 2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오니 각 교회협의회 대표, 각 교단대표와 공인된 선교단체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8월 19일(월)-21(수)

- ◆ 19일 오후 2시부터 등록
- ◆ 19일 첫날 개회예배 : 오후 6시30분
- ◆ 20일 둘째 날 오전 10시30분 세미나.

제1 세미나: 통일선교전략  
제2 세미나: 난민선교전략  
제3 세미나: 21세기 영적전쟁 어떻게?

- ◆ 21일 셋째 날: 취임식 및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장소 : 갈보리새생명교회  
주소 : 111 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문의 : 준비위원장 민승기 목사  
전화 : (714)615-9191  
E-Mail : johnsming191@gmail.com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 준비위원장 민승기 목사, 사무총장 이재덕 목사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패밀리 워십 나이트를 가지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밤을 이용하여 '패밀리 워십 나이트'를 갖는다.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화도 감상하고 선교의 비전을 나눈다. 오래 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 갔을 때, 3대로 구성된 찬양대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과 부러움의 도전을 받았다. 백발의 조부모와 중년의 부모세대 그리고 젊고 어린 손주세대가 함께 찬양대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천국의 축소판을 보는 듯 황홀했다. 3대가 함께 모여 혈연관계를 넘어서 영적으로도 한 가족임을 당당하게 보여주었다. 아무리 한국이지만 오늘날 핵가족 시대에 3대 찬양대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교회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은혜로운 풍경이었다. 뉴욕에 돌아가면 당장 우리 교회에도 3대 찬양대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이민교회의 실정은 녹록치 못했다. 이종언어와 문화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3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지 못했다. 그래서 차선으로 시작된 모임이 '패밀리 워십 나이트'이었다. 그 사이에 우리네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제법 많은 가정들이 3세대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민 가정의 가족들은 3대가 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못한 현실이다. 우선 언어적인 제한으로 한어권 영리교로 각각 나뉘진다. 가족모임이라 해야 겨우 명절이나 생일날에 모여서 식사기도하고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여반사이다. 은혜롭게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이민가정의 현실이다. 물론 절기 때에는 이종언어로 교회 전체가 함께 합동예배로 모이고 있다. 늘 아쉽다. 언어와 방언을 초월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데... 그래서 비록 일년에 한번이지만 여름 방학 기간 중에 '패밀리 워십 나이트'를 통해 서로 함께 모여보는 취지였다. 모두들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참여한다. 참 싱겁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심이 무르녹은 모임이다. 서로를 존경하고 따뜻하게 만나 는 시간들이다. 우리들은 네 주간에 걸쳐 영어로 한어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종언어로 말씀도 나누고 준비된 가족들의 특송이나 연주들을 곁들이기도 한다. 어느 해인가는 3대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다. 부모에게서 판박이를 하듯이 꼭 닮은 광경을 보면서 박장대소를 한 적도 있었다. 굉장한 관심과 뿌리 교육에 많은 즐거움을 찾기도 했었다. 지난 수요일 밤에는 문화의 밤으로 랑캐스터 펜실베이니아 사운드 앤 라이트 극장에서 공연하는 바이블 뮤지컬 드라마 '요나'를 감상했다. 작년에 우리 목회자 팀이 그곳에 다녀왔을 때는 꼬박 하루가 걸렸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교회당에 앉아서 바이블 뮤지컬을 감상하였다. 다음 주간 마지막 시간에는 올 여름 단기선교에 참여한 가족들을 중심으로 선교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 될 것이다. 더 많은 3대들이 모여서 앞으로 누리게 될 천상의 영원한 예배의 진수를 맛보았으면 좋겠다.

jkim47@gmail.com

# 푸/른/초/장

최창훈 목사 (고현교회)



본문에 보면 자신이 살던 본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낯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셔서, 그들은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소유가 많아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 하시니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둘이 나누어져 평안하게 살아갈 것으로 여겨졌던 미래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민자인 롯에게 큰 어려움이 생겨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1-2절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랄 왕 아리옥과 엘람 왕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남과 스보인 왕 세메엘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다시 말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군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한 나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포로로 끌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결말은 항상 승자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게 되자 그곳에 거주하여 살아가는

이웃한 사람들과 동맹의 삶을 살았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공동의 적을 대항하거나 공격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롯의 상황을 접한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의 이웃들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색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접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이나 주변과 동맹을 하고 그들에게만 지혜를 구했다"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좋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성경 속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한사람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7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80세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왕을 아래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바벨론 제국의 가장 치열한 정치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

상황 앞에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어떤 준비를 하였고 또한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아브라함은 주변의 사람들과 동맹의 삶을 살아감으로서 변화를 준비하였습니다(1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마므레 상수리 수풀근처'에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과

는 가정들이 많지 못했다. 그래서 차선으로 시작된 모임이 '패밀리 워십 나이트'이었다. 그 사이에 우리네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제법 많은 가정들이 3세대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민 가정의 가족들은 3대가 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못한 현실이다. 우선 언어적인 제한으로 한어권 영리교로 각각 나뉘진다. 가족모임이라 해야 겨우 명절이나 생일날에 모여서 식사기도하고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여반사이다. 은혜롭게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이민가정의 현실이다. 물론 절기 때에는 이종언어로 교회 전체가 함께 합동예배로 모이고 있다. 늘 아쉽다. 언어와 방언을 초

월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데... 그래서 비록 일년에 한번이지만 여름 방학 기간 중에 '패밀리 워십 나이트'를 통해 서로 함께 모여보는 취지였다. 모두들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참여한다. 참 싱겁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심이 무르녹은 모임이다. 서로를 존경하고 따뜻하게 만나 는 시간들이다. 우리들은 네 주간에 걸쳐 영어로 한어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종언어로 말씀도 나누고 준비된 가족들의 특송이나 연주들을 곁들이기도 한다. 어느 해인가는 3대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다. 부모에게서 판박이를 하듯이 꼭 닮은 광경을 보면서 박장대소를 한 적도 있었다. 굉장한 관심과 뿌리 교육에 많은 즐거움을 찾기도 했었다. 지난 수요일 밤에는 문화의 밤으로 랑캐스터 펜실베이니아 사운드 앤 라이트 극장에서 공연하는 바이블 뮤지컬 드라마 '요나'를 감상했다. 작년에 우리 목회자 팀이 그곳에 다녀왔을 때는 꼬박 하루가 걸렸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교회당에 앉아서 바이블 뮤지컬을 감상하였다. 다음 주간 마지막 시간에는 올 여름 단기선교에 참여한 가족들을 중심으로 선교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 될 것이다. 더 많은 3대들이 모여서 앞으로 누리게 될 천상의 영원한 예배의 진수를 맛보았으면 좋겠다.

리고 예상치 못하는 변화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인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6:10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의 일평생이 기도의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민자이고 포로였지만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이웃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을 주며 그들 안에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속에도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 아브라함은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 평생의 동역자들을 세워 나갔습니다(14절).

양이 공동체를 세워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의 인생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의 결에는 그와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굴람 동굴에서 다윗은 그와 평생을 함께한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대단한 힘이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능력이 출중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환난을 당한 자였고 빛진 자였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꿈을 꾸며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면서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남는 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함께 먹고 자며 일생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자 그 앞에 닥친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아브라함과 함께한 318명의 용사들과 같이, 아굴람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용사들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아가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욱 크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하나되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믿음의 공동체로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완벽한 준비가 소원을 이룬다

## 창세기 14장 13-16절

### 공동체로 사는 법 ... (2면에서 계속)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다. 그러면 당신의 변화된 마음에서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이고, 이것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줄 것이다. 성경적 공동체는 피상적인 우정을 초월한다. 많은 사역자들이 형식적 차원에 머무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소수의 사람들을 점점 더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성공뿐 아니라 고민과 상처까지 나누라는 신약성경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공동체의

본을 보이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사람과 똑같은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리더는 가까운 친구들을 몇 명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을 가까이 두셨던 것을 기억하라. 많은 목회자들이 깊이 있는 관계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때문이다. 그러나 목회자의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엡4:12),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관계적 공동체에서 보낼 시간도 생길 것이다.

을 "점령자들"로 묘사했다. 글쓴이는 "인종 혼합(race-mixing)"과 다양성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한편 계속되는 이민자 유입의 책임을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미국 재계"에 돌렸다. 그리고는 멕시코인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들이 텍사스에서 "정치적 쿠데타"를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2-3세대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지칭하면서도 다른 인종 간의 관계들이 바로 그들을 "돌려보내"야 할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표현들은 지난달 노스캐롤

### 이민자 증오/혐오...

(1면에서 계속) 이 문서는 히스패닉 미국인들

라이나 유세에서 소말리아계 미국인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민주당, 미네소타)을 "돌려보내라"고 외쳤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종차별적 구호와 유사하다. 이 '선언문'은 무슬림 커뮤니티를 겨냥했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총기난사범과 그가 작성한 선언문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으며,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잘사는 조국

매년 여름이면 한국을 방문한다. 대략 두 주간을 방문하면서, 집회와 세미나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물자수입을 하게 된다. 금년에도 7월말부터 2주간을 방문하게 되었다. 한국은 매년 모든 것이 편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진다. 시골의 군 면 단위의 마을을 가보아도 얼마나 경지정리와 환경에 신경을 썼는지, 선진국의 웬만한 관광지처럼 잘 꾸며 놓았다. 그렇게 도시와 농어촌 구별 없이 이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식당 같은 곳을 가보면, 맛집으로 소문난 곳마다 도시의 경계를 넘어 그 뜨거운 피약벌에서도 줄을 서서 소문난 그 음식을 먹겠다고 찾아오는 것을 본다. 오리고기를 먹겠다고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무슨 식당이 있을까 싶

카의 지하자원을 파내 쓰자는 것이다. 개발론의 관점이다. 그 개발론의 전제엔 적극적인 신앙관이 깔려있다. 꺼내고 파내어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큰 대제 에너지를 준비해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과 판단이다. 미국 경제의 부흥에는 이런 개발론에 입각하여 세워진 정치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일정부분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못하실 일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바탕이 된 것이다. 믿음의 생각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거룩한 나라 타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새벽마다 마치 다니엘처럼 조국을 향해서 기도드린다. 조국 대한민국에도 나라를 부강하게 할 믿음 있는 참 지도

하나되는 민족

한국을 방문하던 시기는 반일감정이 아주 격해져 있을 때였다. 이곳저곳에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 중에 행한 잔혹한 일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공유하기를 시작했다. 축구경기가 아님에도 일본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기는 방법이나 목소리가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한편에서는 경제시험에 왜 역사책을 들고 나와서 점수가 나오겠느냐고 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친일파 혹은 토착왜구라는 말로 편가르기를 한다. 한국의 최고학부의 교수를 지내고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과 가장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들이 서로 집안 싸움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역사가 교훈하는 분열이라는 최

름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던 한국 교회였다. 그렇게 나무뿌리를 붙들고 흔들면서 기도했다. 목이 터져라 외쳤다.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했다. 그러나 이젠 나의 사랑하는 조국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 도시인근 기도의 처소들도 문을 닫고, 성도들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비행기를 타더라도 인생을 맛을 즐기고 누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기는 싸움 이순신 장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된다. 그는 23전23승 전승을 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기는 싸움을 했던 것이다. 친일파, 토착왜구, 기승전복한, 온갖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두의 바람은 하나가 아니겠는가? 제발 우리나라가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잘사는 나라, 거룩한 나라

-분열과 회복, 기도의 영성, 이기는 싸움



었는데, 가보니 산중턱에 겨우 차를 세우고서는 표를 받아 기다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해외여행도 활발하다. 인천과 김포공항뿐 아니라, 지방의 작은 공항들도 인근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여행자들을 향해, 미국처럼 규모가 작은 비행기들을 운행하면서 관광의 절정을 지나고 있다. 정말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게 확실하구나 싶었다.

하늘문을 여는 나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낀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오직 하늘에 달려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믿음이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사람이란, 신 불신을 막론하고 공통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 맛있는 맛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음을 본다. 주변 열강들 속에서 구한말 같은 시대의 혼란함이 예견되는 것은 아닐지, 혹은 하나되지 못한 위정자들의 모습에 대한 장탄식이 저들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 같다.

미국에서 자원조달을 위한 땅의 개발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한 가지는 엘 고어 같은 사람을 대표로 하는 기후환경까지 생각하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다. 가끔씩 개발을 자제하면서, 땅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학자들은 멕시코만의 기름이나 알라스

자들이 탄생하기를 기도한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끌고 간다는 것과 반대되는 정치관이 힘을 얻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정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나타나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제대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물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될 때,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가지는 소망은 잘사는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거룩한 나라'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간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한다. 조국 대한민국에 영적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야 한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야 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인생은 가뭄에 허덕이며 마침내 흉년과 기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방향하다가 사람에게 매인 종이 되고 만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아들이 입에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도 먹지 못할 형편이 되는 것처럼, 현재 잘사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한 나라를 꿈꾸는 백성이 되지 못할 때, 잘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고의 민족의 재앙에 대해서는 전무한 인식을 가진 것처럼 싸우기에 여념이 없다. 미국의 주 하나도 안 되는 작은 땅에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하는 것이다.

현실은 영적문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얽히고설켜진 문제들을 보면서, 다시금 눈을 들어 교회를 보게 된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워냈던 모판의 역할을 했던 옛적 일들을 회상해본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는 더욱 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생각하게 된다.

모든 현실의 문제는 영적문제이다. 영적인 문제는 교회생활의 온전함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대형교회와 특별한 사역을 위해 몸부림치는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미래의 성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갈수록 쇠퇴해간다는 것이다. 모이기를 힘쓰라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런 때를 예견하셨는지 새로운 교회의 개척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존의 교회마저도, 특히 교육부서와 예배회집에 있어서 확실한 격감을 느끼게 된다. 예전의 중대형 교회에도 학생들의 숫자는 자주 줄어간다.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 전반의 교육과 예배의 형식과 내용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다시 교회와 신앙이 회복되어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예전에는 기도원, 삼각산, 북한산 등에서 나무뿌리를 잡고 밤을 새워 씨

승리하는 나라, 다시 외세에 굴복되지 않고 온전히 강건함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전승을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이기는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교회가 이기는 길, 민족과 나라가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 이길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먼저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그가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 승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 조국은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 영적으로 다시 부흥의 불길에 타올라야 한다. 잘사는 나라보다 거룩한 나라가 되기에 힘써야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3면에서 계속>

이와 유사하게 일본 기업이 전쟁피해를 입었던 중국인들에게 사과 및 배상을 해 준 사례는 '가자미건설' '닛폰야코코구' (스테인레스 철강회사)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미쓰비시 머티리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기업이 이렇게 행동을 취한 배경에는 중국정부와 국민들의 반일여론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국력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력이 국가 사이의 의사결

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신앙인들이 과연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힘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과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르는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중심이 되어 한 생명의 가

치를 전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나간 양국의 역사를 정직하게 해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다면 분명히 한 일 정부와 기업이 선뜻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과와 아픔의 역사를 따뜻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눈물과 무릎으로 나아온 한국교회와 일본교회의 모습을 소망하며 그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교회에서 대중기도를 맡은 교회의 중직입니다. 한 주일이 끝나는 주일오후에는 인터넷 영화를 보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보면 부끄럽게도 포르노 수준의 영화도 자주 보게 되는데 크리스천으로 자제력만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보는 것 자체가 죄인가요?

-LA에서 K

A: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에 노출된 오늘의 시대에 남자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성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를 통해 성적 흥분을 자극하는 포르노(pornography)는 현대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포르노가 사회를 저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편에서는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불 권리에 관한 문제에 기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신원하 교수는 "교회에 대답해야 할 윤리문제"라는 책에서 "포르노는 대부분이 노골적이고 비정상적인 성행위의 모습을 담고 있기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야기하고 그로인해 성적인 일탈행위와 범죄를 촉발할 개연성을 담고 있기에 건전한 사회와 시민의 정서를 위해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포르노는 자체에 문제가 없으며 그것을 성숙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여자 발목이 드러나도 남자에게 성적 자극이 되었는데 요즈음은 여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드러내어도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성욕은 문화에 따라 다르기에 포르노물은 그 자체로 볼 때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끔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영화를 보는 것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르노급의 영화를 자주 접하다 보면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이라도 음란과 호색에 빠지게 되고 성적인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의 정서는 점점 더 강렬한 것을 찾게 되며 결국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짓기 쉽습니다. 성적인 욕망은 인간이 가장 저항하기 어려운 힘든 악

포르노 자주 보면 음란과 호색에 빠져...음란은 신앙생활의 상극

인데 선정적인 영화를 자주 보게 되면 음란한 생각과 충동에 사로잡혀 결국은 죄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고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롬13:12-13).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딤후2:22).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날은 영상시대로 영혼 빼앗기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는 것으로 점령을 당합니다. 성경을 읽고 보면 거룩한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나 음란한 영화를 자주 접하면 불결하고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멀리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119:9, 11),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음소서 라는 것은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음란과 싸워 이기려면 나도 피나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피해야 하고 둘째는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음란은 신앙생활의 상극입니다.

◆ 휴스턴한인교회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

청빙 초교파 교회로써 지난 48년 동안 휴스턴 한인지역 사회에서 보수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에 힘써온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8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 1. 정규목사교육과정(M. Div.)을 이수하신 분
2. 55세 미만
3. 미시민권자, 영주권자이시거나 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및 가족 소개서
2. 목회비전 및 신앙 고백서 (3 Page 미만)
3. 최근 설교 2회분 동영상 또는 CD/DVD/USB
4. 목회안수 증명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6. 추천서(2인) 및 조회처 List (최소 3곳 기재)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심사 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통지 드립니다 (전화문의 사절)
-봉투 결면에 "담임목사 청빙서류 재중"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인

EM 전도사 지원희망자는 이력서를 하기 이메일 주소로 송부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9년 9월 30일

제출처

- 1. 우편 :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KCCH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2. 이메일: kcch2019@gmail.com



###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인도의 브힐랄라(BHILALA)



브힐랄라족은 인도 중서부 여러 지역에 분포돼 있으며, 특히 드하르와 자부하, 마드하 프레데쉬의 서부 니마르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브힐랄라어라고도 불리는 그들의 언어는 빌언어에 속한 언어이

며, 인도-아리안에서 파생된 것이다.

빌족은 과거 라지푸트족에 의해 정복됐지만, 라지푸트족의 친선정책과 두 종족간의 잦은 결혼으로 인해 반감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 브힐랄라족은 13-14세기에 마드하 프레데쉬족에게 침입을 당하면서 이주한 라지푸트족과 빌족의 후손들이다. 브힐랄라족은 빌족 지도자의 직계 후손이 된 이후로는 빌족 사이에선 고귀한 품성을 가진 자들로 간주되지만 현재는 빌족과의 어떠한 제휴와 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삶의 모습

빌라라족의 대부분은 농부나 소작농, 들판 노동자, 촌락 경호 등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 가속화되는 인구증가로 인해, 빌라라족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작은 농장을 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끔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층 브힐랄라족이나 상당한 양의 토지를 소유한 부자들도 발견할 수 있다.

빌라라족의 촌락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존재한다. 각 집들은 옥수수나 수수, 보리, 밀 등을 재배하는 농장이 있으며, 고지대에 사는 브힐랄라족은 작은 가지와 나뭇가지 등을 엮어서 집을 짓고 산다. 또한 집의 지붕은 흙을 이용해 만든 경우가 많지만, 가끔 짚이나 나뭇잎 등으로 만들기도 한다.

유교나 가축, 폭력 등 촌락

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점은 만도이(Mandoi)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촌락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다뤄진다. 가족 간의 유대의식이 매우 강하며, 삶과 죽음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또한 전형적인 가부장제도를 따르며, 재산은 남자형제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진다.

브힐랄라족의 결혼은 주로 같은 신분제도하에서 이뤄지며, 만약 다른 신분과의 결혼을 원할 경우, 낮은 신분의 브힐랄라족의 신분상승이 이뤄져야 하고, 그가 속한 모든 가족과 인연을 끊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부족간의 결혼은 금기시 한다.

브힐랄라족은 활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이다. 실제로 빌(Bhil)이라는 단어는 화살을 뜻하는 빌리(billee)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활은 부족의 전통적

무기가 됐으며 항상 그것들을 소지하고 다닐 만큼 브힐랄라족의 상징물이 됐다.

브힐랄라족은 직접 수를 놓은 화려한 의상과 문신을 좋아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수줍은 성격이지만 춤과 노래, 연극 등을 좋아하며 다양한 축제와 함께 밤새 술을 즐기기도 한다.

#### 신앙

모든 브힐랄라족은 일정 형태의 토속신앙을 따른다. 힌두교를 믿으며, 각자의 집에 수호신을 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브힐랄라족의 종교의식에서는 브라만(카스트제도에서 가장 높은 신분)들을 위한 특별한 행동이나 행위는 발견할 수 없다.

브힐랄라족은 매우 미신적이며 금제와 저주 등을 믿는다. 다른 빌(Bhil)족과 같이 흉안을 가진 사람을 매우 두려

워하는데,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력을 불어 넣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브힐랄라의 성직자들은 종재자와 예언자, 치료자 그리고 송배자 역할들을 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정신과 소유를 유도함으로써 홀리게 된다. 하지만 브힐랄라족 성직자들은 대부분 마녀들을 다루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마녀를 내쫓거나 악령을 다룰 때는 촌락에서 따로 마법사(witch doctor)를 부른다.

#### 필요로 하는 것들

아직까지 브힐랄라족을 전도할 선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브힐랄라족의 기독교인들은 41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월로우크리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와 결별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가 성추문으로 사퇴한 지 15개월이 지난 가운데, 월로우크리교회(Willow Creek Church)가 공식적으로 하이벨스 목사와의 결별을 알리고 그의 회개를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제프 메이슨(Jeff Mason) 장로가 이끄는 월로우크리교회 신임 이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월로우크리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월로우크리교회에서 40년 이상 봉사하며 희생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방치해 둔 죄와 위험적인 행동이 해로운 결과를 낳았고 오늘날에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하이벨스 목사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회개하며 화해의 사역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독립자문단체(Independent Advisory Group)는 하이벨스 목사의 성추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이같은 혐의가 '신뢰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 그를 위한 상담을 추천했다.

이들은 17페이지 보고서를 통해, 월로우크리협회(Willow Creek Association)와 교회의 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를 주문했고, 이와 관련된 15가지 제안을 제공했다. 월로우크리협회는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이름을 글로벌리더십네트워크(Global Leadership Network)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성명에서 "우리의 바람은 투명성과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빌 하이벨스 목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가 지금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를 만나서 치유와 화해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 "일본 핵재앙, 무산 올림픽"

미국의 유력 주간지가 도쿄 2020년 올림픽을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재앙을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방사능 재앙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뉴욕에 본부를 둔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은 지난달 25일자로 송고한 '후쿠시마는 올림픽을 치르기에 안전한가?(Is Fukushima Safe for the Olympics?)'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방사능 오염으로 도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매체는 우선 "2020 올림픽 성화는 후쿠시마에서부터 시작된다. 후쿠시마는 국제 스포츠보다는 지진과 쓰나미, 핵재앙 등과 더 연관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멜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55마일 떨어진 곳에서 야구 경기를 치르려고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또 일본 정치인들이 후쿠시마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졌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다녀온 결과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저널리스트와 영상 제작자, 전 세계 활동가 등과 함께 버스를 타고 후쿠시마를 둘러보고 왔다"면서 여행에 동행했던 후지타 야스모토 교수가 측정한 선량계 수치를 공개했다.

에초 0.04 마이크로시버트(uSv)를 가리켰던 선량계는 핵발전소와 제염작업이 진행된 곳에 가까워지자 0.46uSv까지 올라갔다. 후지타 교수는 선량계 수치가 0.23uSv 이상이면 안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량계는 멜트다운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다이치 제1원전에 다가서자 무려 3.77uSv까지 치솟았다. 안전 기준보다 무려 16배 이상 높은 수치다.

더 네이션은 "올림픽 성화는 이렇게 고오염(high-contamination) 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우려했다.

원전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도 처치 곤란이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을 긁어낸 뒤 이를 검은색 비닐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데 수 천 개가 넘는 봉투들이 '검은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의 작업 인부들은 안전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았다고 한다.

매체는 정치인들의 허언도 문제 삼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3년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에게 후쿠시마는 '안전하게 관리'(under control)되고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아무도 이를 믿지 않는다.

후쿠시마에서 활동하는 독립 언론인인 히로코 아이하라씨는 "정부가 진실을 넘어선 선전 선동을 일삼고 있어 방사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놓고 일본인들이 분열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주민들에게는 핵재앙과 제염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토로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놓고 과학적 연구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후쿠시마 원전 근처 3%만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아베 정부는 원전 사고 이후 1년간 노출 안전 기준을 1 밀리시버트(mSv)에서 20mSv로 20배 높게 책정해 버렸다. 원전을 피해 피난 나온 주민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은 뒷전이다.

후쿠시마 현 마스미 코와타 오오쿠마 시의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어떤 것도 잘 관리되고(under control) 있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극복되지 않았다"면서 "핵 방사능은 여전히 매우 높다. 아주 작은 부분과 제염됐을 뿐이지 대다수 지역은 방사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지금도 여전히 지진과 쓰나미, 원전 폭발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 사람들도 피난간 마당에 무슨 올림픽인가"라면서 "특히 이곳 후쿠시마 사람들이 점점 병이 들고 있다. 스트레소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세계는 이걸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방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원해"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강행한 지 단 하루 만이다. 배치 지역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령 괌은 물론 한국과 일본, 대만 등지가 거론된다. 미군 중거리 전력 강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해 동북아 지역 군비경쟁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주를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3일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 시기와 관련해 "나는 몇 달 안에 이뤄졌으면 하지만 육군의 미사일 개발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며 "(배치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말한 건 재래식 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아시아에 핵무기를 반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에스퍼 장관의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 INF 조약 탈퇴를 공식선언한 직후에 나왔다.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INF 조약은 사거리 500~5500km의 중거리미사일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신행 순항미사일 배치에 항의하며 대응 조치로 INF 조약 탈퇴를 예고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2021년 말로 예정인 미·러 간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연장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미군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성격이 크다. 중국은 괌과 대만, 일본, 인도 등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미사일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 미국은 INF 조약 탈퇴 명분으로 북한과 중국, 이란의 중거리미사일 개발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NF 조약 탈퇴 직후 기자들에게 "새 합의에는 중국도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거리미사일을 어디에 배치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괌과 함께 한국과 일본, 대만 등지를 배치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

####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영·불·독, 안보리 개최 요구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지난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의 1일 개최를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약속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에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미국이 안보리 회의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미 대화 국면이 시작된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미사일이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 미사일 문제만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 매달 새로 바뀌는 안보리 의장국인 안보리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한 달 동안의 이슈를 토의하는데, 북한 미사일 관련 논의는 '기타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안보리 의장국은 폴란드다.

이런 상황에서 불탄 보좌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미사일의 발사는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계속 유효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는 신호로 보여진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을 비판하자니 북·미 대화의 끈이 끊길 우려가 있고, 이번에도 북한을 감싸자니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고조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10여건의 트위터 글을 올렸으나 관련 내용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감싸기를 계속할지, 아니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 극우테러 빈발에 "포스트9·11 대응책 마련해야"

백인 우월주의 추종자의 총기 테러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차단에 초점을 맞춘 미국 안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11 테러 이후인 2002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보다 극우 성향 백인 우월주의자 범죄 피해로 숨진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 결과까지 나왔다.



대(對)테러 업무 담당해온 전직 미국 관리들은 백인 우월주의 등 국내 테러를 국제 테러와 같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다. 이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 테러가 최우선 현안으로 다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테러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재단에 따르면 2002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숨진 사람은 104명이었다. 같은 기간 극우 성향 범죄 피해 사망자는 109명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리사 모나코 전 백악관 대테러 담당 보좌관은 "극우 세력과 연계된 범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우 백인 우월주의 테러 대응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어 극우 세력의 혐오발언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이들에게는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지도자도,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도 없다. WP는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 은신처에 숨어든 것처럼 이들은 인터넷 세계 연구석에 잠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79. 한치홍(1869-?)

한치홍이 그의 부인과 아들과 함께 일본 마루 편으로 1903년 4월 30일에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했을 때 34세였으니 1869년경에 태어났다고 보면 되겠다. 하와이로 이주할 당시 그의 부인은 29세였고, 그의 아들은 11세였다. 하와이로 이주하기 전 그가 평산에 거주했다는데 평안북도 평산인지 황해도 평산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는 1905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 남가주 리버사이드 인근으로 이주하였다.



멘티카 한인감리교회, 1918년

은의 부인 양재현을 교사로 모시고 1918년 3월에 개회식을 할 때 한치홍은 본교 역사를 소개했다. 그해 9월 그가 이 걸의 병원비에 후원하였다. 한치홍은 예배당 건축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해 8월 그는 멘티카 예배당

윤문숙과 안경식이 1907년에 관공사로 3개월 징역에 처했는데 한치홍이 김공제와 함께 150달러를 모아 안경식의 벌금을 대납하고 그를 석방하였고, 벌금을 물어주지 못한 윤문숙을 석방할 수 없었다고 하니 이에 신한민보가 한치홍의 의리를 높이 썼다.

한치홍이 1908년에 중가주 샌포드에서 거주하던 이듬해에는 아이다호 주의 아이드리아 수은광에서 일했다. 그가 1915년에 다뉴바에서 자승을 하였는데 당시 11인의 한인 동포가 농사하는 토지는 총 124.5에이커에 해당했다니 대단하다.

#### 멘티카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한치홍이 멘티카의 국민회 지방회 부회장이 된 때가 1916년 5월이었으니 그 이전에 멘티카로 이주한 모양이다. 1917년 3월에 미국 남감리교 감독 램버트 목사가 미국 남감리회 북가주 한인지방연회를 소집하였을 때 한치홍은 멘티카 한인감리교회의 최능익과 함께 2인 대표 중 한 사람이었다. 이날 임정구 전도사가 순회 목사로 멘티카 한인감리교회에 파송되었고, 본 교회 전도사로 최능익을 임명하였다. 그달에 보고한 다뉴바 예배당 건축 결산보고서에는 그가 15달러를 헌금하였다. 이날 헌금 합계는 508달러 70센트였다.

한치홍은 한국학교와 한인사회에 힘을 쏟았다. 한동안 폐교되었던 한흥국어학교를 계속하기로 하고 양주

건축을 위하여 25불을 헌금하였다. 본 교회 재무였던 김원택의 보고에 따르면 총 250달러 35센트를 모금하였는데 최고로 많이 헌금한 자는 31달러 85센트를 헌금한 미국 남감리교 감리사인 익톤 목사였고 그 다음이 한치홍이었다.

1918년 10월 10일에 상항 피척터널의 백인 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 감독 루부스 목사의 사회하에 미국 남감리교회 지방연회가 있었다. 이날 한치홍은 멘티카 한인감리교회의 전도사로 파송 받았고, 최능익은 재신임을 받았다. 그는 최능익과 함께 북가주 순회 목사였던 임정구 전도사가 멘티카를 방문하지 않으면 교회를 목회했다. 당시 임정구 전도사는 오를랜드, 스타튼, 새크라멘토, 윌로우스 그리고 멘티카를 책임진 순회 목사였다.

최능익 전도사와 함께 한치홍 전도사의 사역 중에는 주일예배 인도 외에도 건축비 부채상환, 대안여자전도

회 활동 협력 그리고 국어학교 협력 등이 있었다. 김경보가 증정한 콜라라도 거리의 땅 위에 1,500달러의 건축비로 1918년 9월 22일에 예배당을 건축하였는데 건축으로 인한 300달러의 상환이 숙제였다.

멘티카 예배당 부채는 비단 멘티카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인근 한인 동포들도 큰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해 12월에 북가주의 맥스웰과 중가주 다뉴바에서 본 교회 건축을 위하여 헌금한 자가 53명에 이르고 총 85달러가량을 헌금하였다. 북가주 맥스웰은 멘티카에서 서북쪽으로 126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중가주 다뉴바는 남동쪽으로 14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다.

1919년 3월에 두 번의 모임이 있었다. 그달 1일에 문양목 교장의 취지 설명으로 시작된 국어학교 개회식에서 한치홍은 순서를 맡지 않았다. 그달 27일에 멘티카에서 조직한 대안여자전도회의 제2회 기념식이 있었을 때도 그는 순서를 맡지 않았다.

1919년의 보고에 따르면 출석 교인은 30명이었다. 1918년의 출석 교인이 56명이었던 점으로 보아 한인 동포의 이동이 많았음을 짐작된다. 이해의 총 한인감리교인수는 252명이었다. 이해에 1,200달러의 건축비로 예배당 겸 사회관을 건축했다. 한인 교인들이 이 건축비를 헌금하였고, 다른 도움을 받지 않았다. 한치홍은 약 1년간 자비량 전도사로 사역하였다.

### 1903년 가족과 함께 도미, 1930년 부부만 귀국 멘티카 한인감리교회 대표, 자비량전도사로 사역

#### 태프트

한치홍과 그의 가족은 다뉴바와 스타튼을 거쳐 태프트로 이주했다. 1926년 9월 12일 오후 2시에 스타탄드 오일 회사 클럽 하우스를 빌려서 이곳 한인 남녀 24명이 모여 토마스 D. 맨스필드 박사의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만수필로 알려진 그는 1912년 캐나다 장로교의 파송으로 함경북도 회령에서 활동하다가 세브란스 의과 전문학교 재단 이사로 2년간 봉직하는 등 14년간 한국에서 사역하였고 도미 후 위의 오일 회사에 임사하였다. 그는 한국어도 매우 잘하였다.

이 환영회는 위영민의 사회로 일동이 제5장 찬미를 부르고 한치홍이 기도한 후에 임지성 부인이 애국가 한 곡을 부른 후 맨스필드 박사가 한국말로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말씀을 하였는데 일반 청중이 매우 재미있게 들었다. 이후 이병호가 감사한 후 일동이 찬미로 폐회하고 다과회가 이어

졌다.

1927년 3월 1일에 있었던 제8회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한치홍은 기도순서를 맡았다. 16인 남녀 동포가 모여 태백중 광야에 가서 오후 1시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각 가정의 준비해온 음식을 차려놓고 점심과 저녁 등 두 때를 배부리 먹고 흥미 있게 놀다가 서천에 걸린 햇빛을 벗하여 각자 자동차로 집으로 돌아왔다.

당일 기념식은 회장 위영민이 개최한 후에 일동이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 경례식을 한 다음에 한치홍이 기도를 하였다. 이후 신두식이 취지를 설명하였고, 제2절 애국가를 합창하여 일반의 정신을 새롭게 한 후에 소대도가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이병호의 연설과 송치은의 감상담으로 순서를 마쳤다.

#### 귀국

태프트에 거주하던 한치홍과 그의 부인은 26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1930년 10월 18일에 아사마 마루 선원으로 귀국한다. 그가 61세 때다. 귀국길에는 태프트의 박인선과 달라노의 한영경과 김관형 그리고 1928년 도미하여 신시내티에서 신학을 공부한 동석기였다. 한치홍 내외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를 미국에 두고 떠나게 되어 이별의 애연한 정리가 특별하였다. 가시는 부모와 송별하는 자식 사이에 뜨거운 눈물은

상항의 푸른 물감을 더하리만큼 쏟아 지는데 보는 자가 동정의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아래의 전별담을 기고했다.

-미국서 26년 성상 고락을 같이하다가 이제 서로 작별할 때에 섭섭하고 심한 눈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작별이라는 것은 참말 무정하고 사정없는 것이올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와 어린 손자 손녀를 미국에 두고 고국을 향할 때 발길이 옮겨지지 않고 정신이 아득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디다. 그러나 여러분 형매님께 감사한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 떠나려 하나이다.

이 사람이 태프트에서 떠나올 때 먼저 임지성, 최창진, 이병호, 위영민 제씨매과 또한 홀로 계신 여러분 형님들이 사랑의 전별 만찬을 베풀어 주시매 무한한 감사와 느낌이 있었습니디. 나의 사랑하는 박춘근 군은 귀한 물품을 30여 원어치 기념물로 주매 고맙게 받았습니디. 태프트라는 정

든 곳을 잊을 수 없습니디.

나성에 계신 김원택 형님은 사업의 분주함을 불구하고 위정 태프트까지 오셔서 섭섭히 작별하였고, 김원도 누님은 사랑의 기념 예물을 주시디다. 사랑하는 조카 한영대 박사는 보신하는 약을 수십 원어치 기념으로 선사 합디다. 나의 자식 상호는 서양 집에서 공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롭게 볼 수 없음을 짐작하는 흥선복 씨는 자기 자동차를 태프트까지 타고 와서 우리 부부를 태워 달라노까지 와서 여러 형제와 작별도 하고 전별 만찬도 감사히 먹었습니디. 하룻밤을 지나 다시 흥 씨의 차를 타고 다뉴바, 리들리 등지를 심방하였습니디. 오중국 씨의 부인 그 누님은 내 아내에게 명주 드레스 한 갑을 기념으로 주며, 이치안, 오창근 두 분 형님택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디.

달라노 한준상 씨 형님택에서 풍성한 전별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동부인과 따님이 돈 30여 원을 내 아내의 옆 주머니에 슬그머니 넣어준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기 마지않습니디. 흥선복씨 자동차로 스타튼에 와서 내 자식 상호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박대일, 김필권, 박양태, 한교준 제씨매에서 사랑으로 주신 파티는 잊을 수 없고 또한 윌넛그로브에 계신 이유일 의사가 내 아내의 이도 고쳐주고 또한 주신 음식을 감사합니디.

상항에 총회장 백일규 씨가 23식 전부터 나의 일을 성력껏 보아주심을 잊을 수 없나이다. 그리고 문양목, 전득부, 양주는 제씨매에서 사랑으로 차려 주신 음식을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디. 새크라멘토를 잠시 심방하였을 때 정동룡, 김신오 양 씨 맥에서와 박중만씨와 상대한 음식을 차려 주심으로 고맙게 잘 먹었습니디.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할 것은 누구시나 귀국하시려거든 인컴 택스를 예비해서 상항 와서 백일규씨와 의논하면 모든 것을 잘하여 드리나이다. 여러분의 참고가 될까 하여 이번 우리 일행 중에서 내금 물어준 것을 기록합니디. 나는 세의 가진 사람으로 27원 50전, 황영경 씨는 136원 몇전 박인선 씨는 93원, 김관영 씨는 83원을 물었습니디. 이전보다도 심하게 받아낸다고 합니디.

사랑하는 여러분 형매님들과 나의 자식들을 미국에 두고 명일 상오 12시에 상항 부두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붓대가 돌아가지 않습니디. 오직 나의 희망은 본국 가서 장래 예비를 하고 나의 자식 상호의 식구들을 데려갈 생각을 한 즉 스스로 위로가 됩니디. 여러분 미국에 계신 동안 부디 평안히 계시다가 후일 다시 만나기를 바라나이다.

17일 한치홍 올림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   |   |  |   |   |   |  |
|---|---|--|---|---|---|--|
| <b>감사한인교회</b><br>담임목사: 구봉주<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한미연합회: 오후 2:00<br>금요찬양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9:30, 11:30<br>www.thanksgivingchurch.com<br>Tel: (714)521-0981, Fax: (714)521-4636<br>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 <b>나성순복음교회</b><br>담임목사: 진유철<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br>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br>수-금요일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 오전 5:30(월-토)<br>www.lafgc.com<br>Tel: (923)913-4488, Fax: (923)913-4484<br>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 <b>나성영락교회</b><br>담임목사: 박은성<br>주일 1부예배: 오전 7:00<br>주일 2부예배: 오전 8: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4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오전 1:30 (청년)<br>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br>www.youngnak.com<br>Tel: (213)388-9377, Fax: (213)388-6564<br>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 <b>나성제일교회</b><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EM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후 7:30<br>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오전 6:00(토)<br>Tel: (213)388-7101, Fax: (213)388-6564<br>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 <b>나침반교회</b><br>담임목사: 민경엽<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br>주일 학교: 오전 11:00<br>일일목회: 오전 5:30<br>토요일예배: 오전 6:30<br>토요일학교: 오전 9:00<br>Tel: (562)691-0691, Fax: (562)691-0698<br>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br>(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   |  |
| <b>남가주든든교회</b><br>담임목사: 김현인<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EM Youth: 오전 11:00<br>주일 학교: 오전 11:00<br>금요찬양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br>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br>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br>facebook.com/frscca  | <b>남가주사랑의교회</b><br>담임목사: 노창수<br>주일 1부예배: 오전 7:20<br>주일 2부예배: 오전 9:2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20<br>주일 학교: 오전 11:20<br>금요찬양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br>Tel: (714)772-7777, Fax: (714)772-0777<br>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b>대흥장로교회</b><br>담임목사: 권영국<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4부예배: 오전 11:30<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br>금요예배: 오전 7:30<br>Tel: (310)719-2244, Fax: (310)719-2229<br>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br>www.dkc.org                   | <b>디아스포라선교회</b><br>대표: 전영자 목사<br>"계속해서 돌아갈 없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br>주일예배: 오후 2:30<br>Tel: (213)559-7728 (전화 필수 방문), Tel: (213)210-6890<br>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 <b>미주양곡교회</b><br>담임목사: 지용덕<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수요일예배: 오후 7:00<br>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br>Tel: (213)380-9377, 9079<br>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 <b>미주평안교회</b><br>담임목사: 임승진<br>주일 1부: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45<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청년부) 오전 11:45<br>새벽기도회: 오전 6:00<br>www.mpcia.org<br>Tel: (213)381-2202, Fax: (213)381-2535<br>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b>빛과 소금의 교회</b><br>담임목사: 이정현<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br>금요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br>오전 6:00(토)<br>Tel: (310)749-4756<br>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
| <b>베델한인교회</b><br>담임목사: 김한호<br>주일 1부예배: 오전 7:15<br>주일 2부예배: 오전 9:2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청년예배: 오후 2:00<br>신년주일예배: 오전 9:15, 11:30<br>어린이예배: 오전 1:30(수-토)<br>주일학교: 오전 9:15, 11:30<br>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br>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br>www.bkc.org                              | <b>LA 복음연합감리교회</b><br>담임목사: 김효용<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br>주일 4부예배: 오후 1:30<br>수요일예배: 오후 7:00<br>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br>성경대명회: 오후 7:20(금)<br>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br>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 <b>복음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상덕<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영요예배: 오전 2:00(대학부)<br>금요일예배: 오후 7:30<br>Tel: (562)694-6214<br>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 <b>세계소망교회</b><br>담임목사: 오세훈<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수요일예배: 오후 7:30<br>금요일예배: 오후 8:00<br>새벽예배: 오전 5:30(월-토)<br>Tel: (213)-235-7691<br>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 <b>요셉선교회</b><br>담임목사: 정성기<br>주일 1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저녁 7:30<br>금요일예배: 저녁 7:30<br>새벽기도회: 새벽 5:30<br>Tel: (213)388-4090, (818)634-2315<br>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 <b>얼바인침례교회</b><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4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오후 2:00(EM)<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주일학교: 오전 6:00(토)<br>수요일예배: 오후 7:30<br>www.irvinechurch.com<br>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br>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 <b>윌셔크리스천교회</b><br>담임목사: 엄규서<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br>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br>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br>주일학교: 오전 11:00<br>토요일예배: 오후 6:00<br>Tel: (213)384-7274, Fax: (213)384-8638<br>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
| <b>은혜한인교회</b><br>담임목사: 한기홍<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2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2:00<br>금요찬양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br>어린이예배: 오전 11:00(토)<br>주일학교: 오전 9:15, 11:30(토)<br>www.yeswe.com<br>Tel: (714)446-6200, Fax: (714)446-6207<br>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b>주님세운교회</b><br>담임목사: 박성규<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양)<br>주일 학교: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성경대명회: 오후 7:20(금)<br>Tel: (310)325-4020, Fax: (310)325-4025<br>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br>www.junimchurch.com                 | <b>주님의영광교회</b><br>담임목사: 신승훈<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45<br>수요일예배: 오후 7:30<br>새벽예배: 오전 6:00(월-금)<br>Tel: (213)749-4500, Fax: (213)749-6700<br>1801 S. Grand Ave., L.A., CA 90015<br>www.gccj.org  | <b>좋은미음교회</b><br>담임목사: 신원규<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br>주일 3부예배: 오전 11:45<br>주일 학교: 오전 11:45<br>목장기도회: 저녁 8:00<br>금요일예배: 오후 8:00(금)<br>새벽예배: 오전 5:30(월-토)<br>www.socalsamsungchurch.org<br>Tel: (714)646-9259 Fax: (714)646-9264<br>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 <b>코너스톤 교회</b><br>담임목사: 이종용<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www.cornestonca.com / e-mail: pastor@cornestonca.com<br>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br>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 <b>토렌스조은교회</b><br>담임목사: 김우준<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해외<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br>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br>성경대명회: 오전 10:0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www.torranceccc.org<br>Tel: 310-370-5500, Fax: 310-370-2009<br>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b>엘피스사역원</b><br>원장: 박은송 목사<br>엘피스(Elpis)는 (E.L.P.I.S)의 뜻은 소망 (Hope)입니다.<br>https://www.elpisfamily.org/<br>Tel: (213) 700-9928<br>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

들어가며

필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명저들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읽어야 할 필수명저들이다. 대부분 고전에 속하는 것들이지만, 고전은 옛 것으로서 사실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그 책이 쓰였던 시대를 초월하여 영향을 끼치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개혁신앙에 큰 영향을 끼친 저서들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청교도 시대까지 광범위하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5대강령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는 신앙은 청교도 시대에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그 시대의 위대한 작품들을 먼저 소개하고 또한 광범위하게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었던 작품들에 독자들을 초대하고자 한다.

필자 자신의 독서 범위를 넘어서서 이 글을 다루려고 하며, 일차적인 독서와 함께 이차적이고 부가적인 자료들을 인용하여 성도들이 읽을 고전작품들의 중요성과 영향과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책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은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인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필자가 기록하는 간단한 자료 외에 더 권위 있는 분석과 평가를 보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이 글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명저로의 초대를 위한 입문적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I. 존 변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상)

#### 1. 저자 존 변연(1628-1688)

그는 잉글랜드의 엘스투우 마을에서 가난하나 정직한 뿔장이의 딸들로 태어나 초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를 겨우 익힐 정도의 교육을 받았으며 10세에 초등학교까지 그만 두었다. 아버지처럼 금속공예를 수리하거나 만들면서 인생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란 변연은 20세에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했

숙한 경건관을 가지고 있다. 그가 30년의 목회사역 기간에 쓴 60여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권은 국교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옥된 감옥에서 쓴 것이다. 내적으로 변연은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까지 5년 동안 극도의 고뇌를 겪었고, 외적으로 비국교도였다는 이유로 1660-1672년까지 12년, 1676-1677년에 6개월을 옥에 갇혀 고생했다.

### 천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잘 읽으며 절판된 책 없고 영문학 사상 이정표 이룬 영적 생명과 죽음에 대한 청교도의 심오한 진리 담은 교훈적 우화

는데, 그녀가 결혼지참금으로 가져온 것이라고는 "보통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길, The Plain Man's Pathway to Heaven"과 "경건훈련, The Practice of Piety"라는 두 권의 신앙서적 뿐이었다.

그들은 궁핍했지만 부인의 경건한 인격과 행동은 변연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변연은 아내와 함께 이 책들을 읽은 후에 평소 즐기던 세속적인 일들을 중지하였다. 언젠가 그가 무묘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늘에서 "네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갈 것인가?"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듯 하였다. 그와 동시 그의 내면에서 강력한 영적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이때 베드포드의 독립교회 목사인 존 기포드(John Gifford)가 그를 이끌어 주었다.

변연은 기포드 목사의 영적 인도 아래 25세에 회심을 체험했고, 침례를 받아 크리스천이 되었고, 1627년 설교자가 되었다. 그는 철저한 청교도로서 성

그는 당시 비밀집회소(conventicles)로 불리는 비국교도 모임장소에서 계속 설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했다. 그는 베드포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중적인 설교자가 되었다. 만일 그가 영국 국교회에 반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천로역정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영국 국교회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12년간의 옥고를 치루며, 그 기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의 첫 번째 영적 자서전인 "죄수에게 넘치는 은혜,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를 출간한 것도 베드포드 감옥에 있을 때였다. 그는 1675년에 다시 수감되어 그 해에 감옥 책상에 앉아 천로역정을 기록했다.

#### 2. 천로역정의 영향

우선 책의 제목은 "순례자가 이 세상에서 다가올 천성에 가는 과정: 꿈의 비유로 전달됨,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Delivered Under the Similitude of a Dream"이란 긴 제목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은 처음 번역한 분이 한자로 천로역정(天路歷程)으로 잘 번역하였지만 쉽게 번역한다면 "순례자의 여정" 혹은 "천성에 가는 길" 등으로 쉽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 작품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성경 다음으로 잘 읽히는 가장 유명한 기독교 서적으로 결코 절판된 적이 없는 책이라면 이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로역정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이것은 그만큼 믿음의 선배들이 끼친 좋은 유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성경 다음으로 읽히고 있지 않는 듯하다(필자가 신학생들에게 이 작품의 독서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그 결과는 심분의 일에 국한될 정도였다).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 걸작은 영어가 통용되는 세상에서 영문학 사상의 이정표를 이룬 작품이란 것에 누구든지 동의한다. 문학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현실적인 인물들과 극적 구성이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또 끌고 가도록 결합되어있는 전기소설로, 영국소설의 효시로 간주한다. 이 책은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 스피켈에게 영감의 근원이었

으며, 한국의 초대교회 길선주목사에게는 회심의 계기가 되었고, 1930년대부터 1960년대 한국의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에게는 부흥회의 중심주제가 되었으며, 이 작품은 여전히 지금도 절실히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

#### 3. 저술의 의도

1부의 시로 된 서문의 "변명"에서 존 변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우리 복음 시대의 성도들의 길과 경주에 대해 써보고자 시작했으나 성도들의 여행과 영광에 이르는 길에 대한 우화 작품으로 갑자기 바뀌어 막상 쓰기 시작하자 내 머릿속에는 원래 생각했던 스무 가지 사실에, 스무 가지 생각이 더 떠올라 불길 속에서 불꽃이 날아 올라 가는 것처럼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면으로 계속)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 고난과 돌봄

지난 달 고난의 의미에 대한 글을 쓴 이후 고난에 대한 목상이 계속 되고 있다. 2주 전에 내가 섬기는 교회 가정사역부에서 돌봄에 관한 일일 세미나가 있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을지, 네 사람이 각각의 주제로 한 시간 정도 강의 하기로 했다. 나는 고난을 주제로 강의를 하기로 했다. 왜 고난을 주제로 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난달 칼럼에 소개한 한국방송 중 본 "교회오빠"라는 영화관람 이후 다시 한 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영성 과목에서 고난에 대해 주제도 짧게 다루기 때문에 기초적인 강의 노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세미나 전까지 두 달 남짓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고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율기도 다시 읽고, 고통에 관한 두꺼운 책도 사서 열심히 읽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무언인가 부족한 것 같아서 유튜브에 뜨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의 "고난설교"도 다섯 편 정도 들었다.

이상하게도 세미나 준비기간 동안 주위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연이어 듣게 되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론을 넘어서서 실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우리 학교 목회학박사과정에서 졸업논문을 쓰고 있던 어느 목사님의 갑작스런 소천, 작은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의 뇌출혈로 인한 소천, 옛 성도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큰 어려움에 처한 것, 아는 분의 암 소식 등 한 달 내에 갑자기 들려오는 고난의 흉수같은 소식들은 다시 한 번 인간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고난을 생각하게 한다. 저 분이 어떻게 저 큰 짐을 지고 가야 할지 곁에서 보는 나에게도 막막하게 느껴지는 어려움을 당한 분이 감당해야 할 현실이 아픔으로 전해져온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해석하기 위한 여러 접근 방법이 있다. 논리적으로 고난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악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연구이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문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를 논하는 고난에 대한 가상적인 연구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난 앞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개인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목회적인 접근이다. 논리적이거나 가상적인 접근 방법보다 고난을 당한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그러면 고난 중에 힘들어 하는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난을 당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물질적 지원이 얼마나 다양한지가 고난을 이겨내는데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라고 한다.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 감정이나 고통을 부인하고 피하는 대신 삶의 역경과 고난을 대면하며 자신의 갈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능력도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할 일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고난 중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일이다.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친히 겪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삶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옴의 친구들처럼 본인들이 지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말로 고난에 빠진 이웃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믿는 자라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질문과 절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훈계해서도 안 될 것이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아픈 마음에 후시라도 위로가 될까 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런 것 작은 마음 씀이 그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다. 나에게 다칠 수 있는 고난이 내 이웃에게 찾아왔음을 생각하고 진정한 돌봄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작게나마 나의 이웃이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을 더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lpyun@apu.edu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  |  |   |   |  |   |
|--|--|---|---|--|---|
| <b>뉴욕망양교회</b><br>담임목사: 송병기<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3부예배: 오전 12:00<br>수요성경공부: 오후 8:00<br>금요침례: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5:45<br>Tel: (718)361-9199, www.moakyang.org<br>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br>담임목사: 이윤석<br>주일예배: 오전 11:00<br>영아예배: 오전 02:00<br>수요예배: 오후 08:45<br>금요기도: 오후 08:45<br>새벽기도: 오전 05:30<br>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br>Tel: (718)265-2584, www.fccb.org<br>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혜천<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br>수요예배: 오후 8:30<br>새벽기도: 오전 6:00(월-토)<br>주일학교: 오전 11:00<br>Tel: (516)883-1977, Fax: (516)883-1961<br>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 <b>뉴욕새별장로교회</b><br>담임목사: 정기태<br>주일1부예배: 오전 11:00<br>주일2부예배: 오후 1:30<br>주일3부예배: 오후 11:15<br>수요성경공부: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br>(화-토)<br>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br>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br>담임목사: 허윤준<br>주일1부예배: 오전 9:3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3부예배: 오후 1:30<br>주일학교: 오전 11:00<br>수요예배: 오후 8:30<br>금요기도회: 오전 6: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br>Tel: (718)637-1470<br>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 <b>뉴욕새사람교회</b><br>담임목사: 이종원<br>주일예배: 오전 10:30<br>영아예배: 오전 10:45<br>수요예배: 오후 8:00<br>금요침례: 오후 8:30<br>새벽기도: 오전 6:00<br>주일학교: 오전 10:30<br>Tel: (718)461-2810(Fax: 중흥), (917)373-3411<br>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
| <b>뉴욕센트럴교회</b><br>담임목사: 김재열<br>주일1부예배: 오전 7:00<br>주일2부예배: 오전 9: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 오전 5:30(월-토)<br>www.pcny.org, Tel: (516)387-8940, 8942(EM)<br>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 <b>뉴저지성도교회</b><br>담임목사: 허상희<br>주일예배: 오전 11:00<br>찬양예배: 오후 2:00<br>수요예배: 오후 8:10<br>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br>금요기도회: 오후 8:30<br>(매주1주, 3주)<br>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br>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 <b>리빙스톤교회</b><br>담임목사: 유상열<br>주일예배: 오전 10:50<br>주일학교: 오전 10:50<br>청년성경공부: 오후 1:30<br>주일학교친영합: 오후 12:30<br>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br>수요찬양모임: 오후 8:30<br>Tel: (718)961-2171, Fax: (718)961-3631<br>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 <b>빛과소금교회</b><br>담임목사: 정순원<br>주일1부예배: 오전 7:30분<br>주일2부예배: 오전 10:00분<br>주일3부예배: 오후 3:20분<br>청년예배: 오후 8:30<br>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br>목요일 오후 8시<br>토요일 오후 7시 30분<br>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br>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 <b>주비전교회</b><br>담임목사: 이규본<br>주일예배: 오후 12:30<br>새벽기도(월-토): 오전 6:00<br>금요중보기도: 오후 8:30<br>영아예배: 오후 1:00<br>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br>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 <b>퀸즈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성국<br>주일1부예배: 오전 8:30<br>주일2부예배: 오전 10:30<br>주일3부예배: 오후 12:15<br>주일4부예배: 오후 2:00<br>수요예배: 오후 8:00<br>금요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 오전 6:00<br>Tel: (718)886-4040, www.kapcc.org<br>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  |   |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br>담임목사: 김성훈<br>주일1부예배: 오전 9:3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성경공부: 오후 7:00<br>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30(화-토)<br>금요침례: 오후 8:30<br>금요영양기도회: 매일매일 오후 7:30<br>Tel: (604)584-5780, www.pccov.org<br>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 <b>브라질 서울교회</b><br>담임목사: 하경남<br>주일1부예배: 오전 11:00<br>찬양예배: 오후 2:00<br>수요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5:40<br>Tel: 3277-1489, Fax: 3209-9343<br>Rua Joaquim Piza, 281 Cambuci 3, Paulo Cep 01528-010   | <b>브라질 한인교회</b><br>담임목사: 한봉현<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3부예배: 오후 1:30<br>포아예배: 오후 7:00<br>수요예배: 오전 6:00<br>새벽예배: 오전 5:45<br>Tel: 011-55-11-3270-9233, 3277-3141<br>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3-010         |
|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br>담임목사: 최광연<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3부예배: 오후 3:30<br>주일학교: 주일 12:00<br>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 <b>칠레 한인연합교회</b><br>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br>주일저녁예배: 저녁 7:00<br>수요기도회: 저녁 9:00<br>7:14중보기도회: 아침 7:40<br>수,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br>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br>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 <b>토론토 가든교회</b><br>담임목사: 김성민<br>주일1부예배: 오전 9:30<br>주일2부예배: 오전 11:30<br>주일3부예배: 오후 7:00(영어)<br>수요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 오전 5:30<br>금요예배: 오후 7:30<br>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br>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 <b>하와이 행복교회</b><br>담임목사: 이남수<br>주일1부예배: 오전 9:30<br>주일2부예배: 오전 11:30<br>수요성경공부: 오후 7:00<br>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br>Tel: (808)585-1859<br>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br>담임목사: 조일규<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30<br>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br>주일4부예배: 오후 7:00<br>수요예배: 오후 8:00<br>금요기도회: 오후 9:00<br>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br>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b>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b><br>담임목사: 임훈교 목사<br>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br>2. 필리핀 신학대학 교수<br>주일1부예배: 오전 10:00<br>주일2부예배: 오후 3:00<br>주일3부예배: 오후 6:00<br>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br>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예수 안 믿으면 손해 보는 77가지 이유

우리 시대 최고의 전문 카피 라이터로 한국 수필가협회 회원이며, 40대에 늦깎이로 예수를 믿고 난 뒤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한국 기독교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만재의 '예수 안 믿으면 손해 보는 77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7.예수를 믿으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8.예수를 믿으면 성격이 밝아집니다. 9.예수를 믿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10.예수를 믿으면 효자가 됩니다. 11.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12.예수를 믿으면 학교성적이 올라갑니다. 13.예수를 믿으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14.예수를 믿으면 말을 잘 하게 됩니다. 15.예수를 믿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16.예수를 믿으면 귀가 밝아집니다.

17.예수를 믿으면 영어를 잘 하게 됩니다. 18.예수를 믿으면 역사지식이 풍부해집니다. 19.예수를 믿으면 음악을 잘 하게 됩니다. 20.예수를 믿으면 운동을 잘 합니다. 21.예수를 믿으면 편식을 하지 않습니다. 22.예수를 믿으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23.예수를 믿으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됩니다. 24.예수를 믿으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25.예수를 믿으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26.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27.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28.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29.예수를 믿으면 올바른 인생관의 소유자가 됩니다. 30.예수를 믿으면 적이 없어집니다.

31.예수를 믿으면 술을 끊게 됩니다. 32.예수를 믿으면 병이 빨리 낫습니다. 33.예수를 믿으면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34.예수를 믿으면 낙천가가 됩니다. 35.예수를 믿으면 행운이 따라다닙니다. 36.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37.예수를 믿으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38.예수를 믿으면 외로움을 모르고 삽니다. 39.예수를 믿으면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40.예수를 믿으면 번민이 없어집니다.

41.예수를 믿으면 정말 좋은 애인이 생깁니다. 42.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43.예수를 믿으면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44.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져서 장수하게 됩니다. 45.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져서 장수하게 됩니다(2)-

예수 신앙의 뿌리는 평안이기 때문. 46.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예뻐집니다. 47.예수를 믿으면 성공적인 처세를 할 수 있습니다. 48.예수를 믿으면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49.예수를 믿으면 직장생활을 잘 합니다. 50.예수를 믿으면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51.예수를 믿으면 군대생활을 잘 합니다. 52.예수를 믿으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53.예수를 믿으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54.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55.예수를 믿으면 좋은 이웃이 됩니다. 56.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57.예수를 믿으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58.예수를 믿으면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59.예수를 믿으면 봉사하는 착한 사람이 됩니다. 60.예수를 믿으면 안전운전을 약속 받습니다.

61.예수를 믿으면 청렴한 사람이 됩니다. 62.예수를 믿으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63.예수를 믿으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64.예수를 믿으면 낮은 곳의 귀함을 아는 인간이 됩니다. 65.예수를 믿으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66.예수를 믿으면 순한 양이 됩니다. 67.예수를 믿으면 나무 같은 사람이 됩니다. 68.예수를 믿으면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69.예수를 믿으면 자연환경이 깨끗해집니다. 70.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71.예수를 믿으면 공중도덕을 잘 지키게 됩니다. 72.예수를 믿으면 생명 긴 예술가가 됩니다. 73.예수를 믿으면 선진사회가 빨리 옵니다. 74.예수를 믿으면 국력이 커집니다. 75.예수를 믿으면 법이 바로 섭니다. 76.예수를 믿으면 정치를 잘 하게 됩니다(1)-예수의 평등사상이 민주주의의 뿌리. 77.예수를 믿으면 정치를 잘 하게 됩니다(2)-민심은 천심. 못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



광복 74주년, 건국 71주년 축하 기념사



이기홍 목사 (사우스베이션교회 원로, 전 남가주교협 회장)

8월 15일은 "광복 74주년과 건국 71주년"의 날로 함께 기쁨을 가지며 축하를 드립니다. 시편 12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시입니다. 여기에 두 번 "하나님께서 대사(큰 일)를 행하셨다"는 말씀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 우방국들의 노력으로 "광복과 건국"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신 일입니다.

이 특별한 절기에 세가지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36년간의 일제 속박에서 해방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필자는 유년 시에 아버지께서 충남 온양 초등학교 교감이셨는데 일제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여 사표를 내시고 중국으로 망명하시어 한구 도에서 고생하시다가 안정이 된 후에 저희 가정을 초청하시어 우리 가정을 중국에서 가서 생활하면서 한구 도에서 일본학교에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귀국하여 1년 후에 충남 홍성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36년간 나라의 주권은 박탈당하고, 모든 백성들의 이름은 일본어로 개명(나는 니시하라 유기아기)을 하였고, 청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 생명을 잃었고, 젊은 여성들 일부는 정신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은 1945년 8월15일에 미 전함 미조리호에서 "황복문서"에 서명하여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은 항복하였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근 개월엔 한국 정부는 일본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싸울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속히 서로 만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때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한국과 일본은 우방 국가로 서로 협력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함께 공산주의와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역사를 보면 애국자들이 중국에 망명하여 1919년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지만 정식 정부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1945년 해방직후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범람하여 온 사회가 혼란할 때, 이승만 박사께서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1948년 선거를 실시하여 제헌 국회의원을 선임하고, 그 해 5월 31일에 제헌국회가 개최되면서 임시 의장이 되신 이 박사께서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순서에 없는 기도를 부탁하여 간절한 기도 후에 개원되었으며,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7월 20일에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이 수립하기 위하여 1948년 8월 15일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과 대한민국 정부"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도 함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현 문정부가 이 귀한 "건국 기념일"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역사적인 1948년 8월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성경책 위에 손을 정중히 얹고, 선서를 하신 다음에 연설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직책은 나 한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애국 동포 여러분들의 협력만이 가능 합니다. 나는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하며, 북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이곳에 있는 사회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하루 속히 회심개과하여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루어

셋째, 나라를 사랑하며, 한국을 발전시킨 "한국 기독교의 중심사상"에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해방 혼란기,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혁명 등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경제 12위 국가로 된 것은 모든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가 나아갔던 일입니다.

이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칼빈 신학자가 지적한 대로 성경적인 사상이며,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 정신은 "열심히 돈을 벌고, 자기들은 하루 속히 회심개과하여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루어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서재필 박사, 안창호 선생, 김구 주석, 남궁억 선생,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승훈 장로, 이상재 장로, 조만식 장로, 김병조 목사, 김교신 선생, 김규식 박사, 신익희 선생, 윤동주 시인, 안중근 선생, 손병희 선생, 유관순 열사, 박관중 장로, 근년에 한경직 목사, 이성봉 목사, 백낙중 총장, 김광란 총장, 김옥길 총장, 강원영 목사, 김준근 목사, 정진경 목사 등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전 분투하는 김동길 교수, 정규제 주필, 조갑제 선생 등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고 후원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갑제 선생은 "기독교의 정치적 공헌 8가지"를 말씀했습니다.

- ①기독교는 개화의 주역이었다. ②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주역이었다. ③기독교는 반공의 중심이었다. ④기독교는 호국의 주역이었다. ⑤기독교는 근대화의 생활철학이었다. ⑥기독교는 민주화 운동의 요람이었다. ⑦기독교는 앞으로 "남북 평화통일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한다(특히 지금도 부한 정치 수용소에서야 문으로 죽어가는 북한 성도들이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받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⑧기독교는 "인류 국가와 인류시민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한국교회와 미주한 인교회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하며,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개혁운동에 기수가 되어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리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공산주의를 따르는 자는 북한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계속 사회를 혼란시키면 법대로 처벌할 것입니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아시고, "공산당은 호열자 군과 같아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혼란 속에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질로 이웃, 교회,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와 많은 애국 지도자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134여년 전 한국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어 한국인들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공산당은 호열자 군과 같아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혼란 속에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이승만

라크마 "우정의 하모니" 주제 연주회

'2019 여름 디즈니 콘서트' 유대커뮤니티와 함께

라크마(대표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 교수)의 '2019 여름 디즈니 콘서트'가 한인 커뮤니티와 유대인 커뮤니티가 한데 어우러져 "우정의 하모니"라는 주제를 갖고 연주회를 갖게 된다.

오는 17일(토) 오후 8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그리고 유대인 심포니오케스트라 코러스가 윤임상 음악감독과 유대인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인 노린 그린의 함께 필라보로 연주하게 된다.

윤임상 음악감독은 "해마다 연주회를 해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유대인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연주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연주회를 통해 미주에 사는 한인 커뮤니티와 유대인 커뮤니티가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뜻 깊은 의미 있는 연주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에 한인들을 자신 있게 초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 서곡으로 라크마 음악감독 윤임상의 지휘로 최성환 작곡의 "아리랑판타지"를 연주하게 되는데 이것은 디즈니 홀에서 처음 연주되는 곡이다. 이 곡은 지난 2008년 로린 마젤이 뉴욕필과 북한에 가서 연주했던 곡이다.

콘서트에는 한국 전통악기인 대금을 전북대 예대학장을 역



라크마의 2019 여름 디즈니 콘서트에 한인 커뮤니티와 유대인 커뮤니티가 한데 어우러져 '우정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연주회를 갖게 된다. 사진은 2018년 라크마 평화콘서트 평면 사진추진위원인 이번 연주회 재흥을 맡은 노라진 음악감독과 윤임상 음악감독

임한 이화동 한국음악학과 교수와 협연한다.

이어 유대인 심포니 디렉터인 노린 그린의 지휘로 그래미상을 받은 루커스 리치만의 교향곡 "This will be our reply"를 연주하게 된다. 이 곡은 번

스타인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2018년 그의 제자인 리치만이 작곡한 곡으로,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이후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이 이에 대해 남긴 유명한 말("이 사건은 폭력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될 것입니다")을

계기로 만든 작품이며 그의 대표적 작품이 됐다.

한국 곡은 한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 탁계석의 글에 오병희 작곡가가 쓴 "한국의 혼"(Spirit of Korea) 칸타타로 2018년 3.1절 기념을 위해 만들어져 국립합창단이 초연해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던 곡으로 미주 초연이다.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상여소리 등 토속적인 우리 민요와 가락을 모티브로 한국의 전통 복인 모듬북이 연주되고, 대금, 남도 국악창 등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소리꾼 김난영이 함께 공연한다.

마지막은 유대민족과 한민족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베토벤 9번 교향곡 중 4악장 "Ode to Joy"로 다민족으로 구성된 라크마합창단과 유대인합창단이 함께 하며 이 곡의 독창자들

도 2명의 한국인(소프라노 이지는, 테너 오위영), 2명의 유대인(메소 Diana Tas, 베이스 Ron Li Paz)을 독창자들로 세워 연주하며 하나님 아래서 하나임을 확인하며 우정을 나누는 곡으로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라크마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2010년에 설립돼 매년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다양한 주제로 음악회를 하며 베네핏 콘서트를 하고 있다.

또한 매해 겨울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음악세계를 굳건히 세워가고 있는 음악인재들을 발굴,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들에게 오케스트라와 협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310)279-8184 (박준호 기자)



# 동부교계 게시판

## 제 71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제 71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이 9월 23일(월) 오전 9시부터 26일(목) 오후 3시까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다. 등록마감은 8월 17일 선착순 30명이며 등록비는 350달러(교재, 숙식 제공). 참가자격은 담임교역자, 부교역자, 사모, 전도사, 선교사 및 평신도지도자.

▲문의: (240)882-5272 김용오 총무, (301)648-3322 김진형 간사

## 뉴욕리폼드신학교 2019 가을학기 학생 모집

뉴욕리폼드신학교(원)(NYRBS, 학장 유상열 박사)가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고졸 4년) △여교역과(고졸 2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선교학(대졸, 2년), 교육학(대졸 2년), 상담학(대졸 2년), 음악학(대졸 2년)이며 서류는 입학원서, 학력증명서, 소명서, 이력서, 추천서가 필요하다. 원서접수 마감은 9월 7일(토). 개강일은 9월 9일(월). 통신과정은 수시입학이 가능하다. 동 신학교는 2004년 1월 뉴욕주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아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신학교육기관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신측) 미주동부노회가 운영하는 사역자 양성기관이다. 웹사이트 rbsny.org

▲문의: (917)862-0523

## 샬롯장로교회 설립 42주년 감사예배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설립 42주년 감사예배가 8월 18일(주일) 오후 7시 열린다. 본 교회는 1977년 8월 샬롯 지역 최초의 아시안 교회로 설립됐다.

▲문의: (704)529-0900

## 제 13기 가족관계 감정훈련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 13기 가족관계 감정훈련이 “자기발견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주제로 8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개인),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부부) 열린다. 수강료는 개인 180달러, 부부 280달러.

▲문의: (201)242-4422

## 뉴욕농아인교회 100명 초청예배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가 뉴욕농아인 100명 초청예배를 갖는다. 동 교회는 8월 11일(주일) 모세비치에서 열린 이 행사를 위해 후원자를 찾고 있다. Pay to: New York Deaf Church, 메일링 주소는 40-46 190 St, 2F1 Flushing, NY 11358.

▲문의: (917)991-0703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재정보고, 콜롬비아 지원 등 논의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이종명 목사) 7월 정기예배가 지난 31일 오전 10시30분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 후회의를 통해 회계보고 등 안건을 처리했다.

1부 예배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설교 권캐더린 목사, 합심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권캐더린 목사는 “나눔의 기적과 기쁨”(요6:8-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전세계에서 1초에 5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으며 8명에 1명이 굶어죽고 있다”며 “그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죽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먹을 양식이 생산되지만 나눔이 부족해서 굶어죽고 있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나눔은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오병이 이를 통해 5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굶주린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다면 지금도 기적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적은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을 통해 나눔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은 여사가 우리 기아대책을 통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회무는 이종명 목사의 개회기도 후 박이스라엘 목사가 사역보고 했으며 박성원 목사가 감사보고, 박이스라엘 목사가 재정보고 했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2019년 단기선교는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인도오 선교센터 건축을 후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정마련 대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상열 목사는 흥보동영상 제작을 건의하고 이찬양 간사가 맡기로 결의했다. 재정은 아동결연과 일반회비로 나눠 보고했다.

△아동결연: 수입 17350.00달러, 지출 8200.00달러 잔액 9150.00달러 △일반회비: 수입 7328.50달러, 지출 5423.67달러, 잔액 1904.83달러.

또한 이날 후원아동 정보(각 선교지에서 보낸)를 교회별로 배부했다.

▲홈페이지: breadngospel.org (유원정 기자)



CSO 11주년 기념집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파송교회 어린이들이 사역자로 성장 CSO 11주년 기념집회, 시니어 CSO도 동참

CSO(Church Support Organization) 11주년 기념집회가 8월 4일 오후 5시30분 뉴저지 여 성 사 회 봉 사 센터(AWCA)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찬양 박지우 목사(C&G 처치), 기도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워싱턴스 루비 김 자매, 설교 김연수 목사(뉴욕주노교회), 축사 이민영 목사(뉴욕세광교회), 축도 장학범 목사(그레이트벤델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김연수 목사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마21:1-3)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임성 때 탄 보잘것없는 나귀의 쓰임에 대해 소개하며 “CSO가 큰 교회나 이름 있는 기관에서 시작한 것 아니라 신학생들이 작은 교회의 아픔을 눈여겨보며 어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됐다”며 “하지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나귀를 내준 주인처럼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기희생부터 시작됐다. CSO가 11주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이다”라고 격려했다.

2부 헬로우십은 피터송 디렉터 사회로 CSO 소개와 광고에 이어 만찬이 진행됐다.

피터송 디렉터는 “CSO2”(시니어 CSO)를 소개하며 “지난 1년 사이 전문성을 가진 은퇴 성도들이 안주하지 않고 CSO 사역에 참가해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1주년 CSO 역사를 통해 성장한 어린이들이 이제 사역자가 돼 작은 교회에 파송되는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CSO 디렉터 정해성 목사는 “11주년을 맞아 소원이 있다면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런 CSO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 CSO가 작은 산속의 웅덩이처럼 깨끗한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많이 새들과 지친 영혼들이 생수를 마시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디렉터 정인식 목사는 “전통적 사고방식 아래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고민도 했지만,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됐다. 무엇보다 CSO 사역을 통해 도움을 주러가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늘 자신”이라며 “놀라운 하나님나라의 법칙”을 소개했다.

3부 토크쇼는 디렉터 정인식 목사의 사회로 최재형 목사(축복의교회), 백형두 목사(갈보리 순복음교회), 임원빈 목사(십자가연합교회)가 출연했다. 3명의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중 한 교회는 CSO 연합사업에 참여하는 교회이고, 두 교회는 CSO에서 사역자를 파송 받는 교회다.

CSO는 2008년 8월 소수의 신학생들이 사역자가 없어 교회교육을 하지 못하는 개척교회와 소형교회에 사역자를 파송하는 사역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사역자 파송 사역과 함께 교사들의 훈련과 교회 교육자료 보급, 그리고 연합 VBS와 연합 수련회 등으로 사역을 확장했다. 또 전문단체로 인정을 받아 뉴저지교협의 어린이 호산나대회를 주관했으며, 청소년 호산나대회를 공동 주관하는 단계로 성장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 뉴욕화요찬양모임 “3개의 못” 공연

‘뉴욕에서 부르는 장년세대를 위한 정기 화요찬양모임’(대표 유태웅 목사) 시즌2 ‘나를 살린 찬양’ 7번째 모임이 7월 30일 저녁 7시 30분 킨더마이어 미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게스트 최윤섭 목사는 “3개의 못”이란 제목의 모노드

라마를 약 18분에 걸쳐 공연했다.

“3개의 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용한 못을 만들었던 대장장이의 독백을 모노드라마 형태로 만든 것이다.

(기사제공: 화요찬양모임)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

(8면에서 계속)

그는 오랜 세월 욕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 우화작품을 쓰기 시작했지만, 곧 석방되어 이 작품은 그 후에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형식으로 글을 썼는지 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이웃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서 곧 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썼습니다.”

번역은 이 작품을 쓴 후에 청교도 문화권에서는 아주 생소한 스토리 형식인 우화 문장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출판에 대해 늘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찰스 2세에게 자신의 모든 학식을 번역의 설교 능력

과 기꺼이 바꾸겠다고 했던 위대한 존 오웬이 자신의 답답 출판자에게 이 책의 초판을 시장에 내놓게 함으로 이 작품은 널리 읽히기 시작했다.

### 4. “천로역정”의 탁월성

이 작품은 목사이자 설교자인 번연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편적인 생각들이 연속으로 연결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청교도의 기독교적 실존에 대한 이해의 완전한 범위가 그림 형식 속에서 색인처럼 액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 작품의 주제와 심상은 성경적이고 독자에 대한 교훈과 자기 평가를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든 흥망성쇠가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

평론가들은 성경을 반영하는 번연의 수사학은 압도적인 통렬

## 새 지방회장 송일권, 부회장 서정학 목사

### 미주예성 미국동부지방회 제17회 정기지방회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국동부지방회 제17회 정기지방회가 8월 4일 오후 6시 뉴저지 섬기노교회(담임 박순탁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송일권 목사(부지방회장) 인도로 기도 서정학 목사, 설교 김완균 목사(지방회장, 솔즈베리 주찬양교회), 축도 장동신 목사(전 지방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김완균 목사는 “방주가 주는 교훈”(창6:13-16)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2부 회무에서는 △최근 개척된 교회에 1,200달러 후원 △개척 후원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회원의 의무 이행 미비교회에 대해 참여 기회를 임원회에서 권고하기로 함. 임원회는 9월까지 전

대의원에게 보고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 지방회를 열어 다시 다루기로 함 △10월 21-23일 열리게 되는 제17회 정기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는 등을 결정했다.

또한 이종식 전도사(오늘의 목양교회)와 김성진 전도사(섬기노교회)의 목사고시 합격을 보고하고, 오는 10월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됨에 따라 대의원들에게 인사했다.

이날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송일권 목사(퀸즈은혜교회) △부회장 서정학 목사(하회커뮤니티교회) △서기 김성일 목사(하회커뮤니티교회) △회계 조관식 목사(하늘소망교회).

(정리: 유원정 기자)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국동부지방회 제17회 정기지방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한인연합교회 니카라과 단기선교팀들이 현지주민들과 기념촬영 했다.

## 뉴욕한인연합교회 니카라과 단기선교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뉴욕한인연합교회(담임 허용구 목사) 단기팀이 니카라과에서 경배와 찬양, 의료 진료, 어린이 사역과 더불어 드라마, 사물놀이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난 15년간 니카라과 선교와 지원의 큰 열매를 맺보았습니다.

15년 전 이동홍 선교사와 더불어 니카라과에 세웠던 개척교회인 산베니또연합교회 그리고 산베니또연합교회에서 개척한 깨브라다온다연합교회

설립 3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니카라과에서 성년을 맞이한 산베니또연합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뜻 깊은 예배를 함께 드렸다. 허용구 목사를 비롯해 88세부터 48세까지 평균 연령 60세가 넘는 단기선교팀 11명 모두가 각기 맡은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다.

(기사제공: 이동홍 선교사)



뉴욕화요찬양모임에서 최윤섭 목사가 모노드라마를 공연했다.

함과 위력을 보여주고, 성경의 심상에 맞추어 그의 상상력이 불타올 때 그의 산문에 들어 있는 상징적인 단어와 짧은 문장들의 효력은 참으로 매혹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진정한 탁월함은 영적인 생명과 죽음에 대한 청교도의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교훈적 우화라는데 있다. 번연이 이 작품에서 의도한 것은 복음적이고 목회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 5. 작품을 위해 사용한 방법

번연이 이 작품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영적 일생을 순례, 곧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둘째, 순례에 대한 예수님의 심상을 위협과 거짓 발자국 그리고 도움과 돕는 자로 점철되어 있는 곧고 좁고 고생이

심한 길로 묘사한다. 셋째, 경치를 보고 장소를 방문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친구와 대적과 우매한 자와 도중에 만나는 실패를 겪게 되는데, 특히 여행에서 만나는 인물과 장소의 명칭에 그 인물과 장소의 실제와 내용이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넷째, 현실적인 장면과 인물들, 그리고 크리스천(1부)과 크리스티아나(2부)의 실제 영적 경험들,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다양한 잘못된 교훈들을 나타내기 위해 우화적 상황과 섞어 놓은 번연의 혼합기법은 독자에게 충격을 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마음을 살피도록 이끌어간다. 번연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우화적 상황들과 등장인물들에 대해 밝히 드러내는 영적 실제들과 섞어 놓은 혼합기법은 “천로역정”만이 제공하는 독특한 향취라고 할 수 있다.





한인기독교합창단 창단 35주년 기념 제60회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공연 한인기독교합창단 창단35주년 제60회 정기연주회

한인기독교합창단(단장 송대영, 지휘 김동근) 창단 35주년 기념 제 60회 정기연주회가 3일 오후 7시 파사데나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송대영 단장은 "한인기독교합창단이 35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올려드립니다"며 "60회 연주회를 위해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사랑이 전달되는 시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합창단 명예단장인 백경환 목사는 "1984년에 창단된

한인기독교합창단이 35년간 성장해왔다"며 "이년에 부르게 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창조해 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연주회에 올려 퍼지는 찬양이 모여든 모든 청중들의 찬양이 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조셉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불렀으며 공연후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박준호 기자)

### 상하원 120명중 유일한 한인 가주하원 최석호 의원 위한 후원의 밤

가주하원 최석호 의원을 위한 기도와 후원의 밤이 3일 오후 6시 용수산에서 열렸다. 최석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방의무를 휴전선에서 하고 첫 직장을 미국에서 평화봉사단 간사로 시작했다"며 "21년 동안 이민 1세로 미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치는 생각지 않았는데 서투른 영어로 정치를 하는 것은 기적"이라 말했다. 최 의원은 "오렌지카운티는 공화당의 아성인 곳인데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휩쓸었으며 이번 선거역시 상대방후보의 기세가 상당하다"며 "한인커뮤니티에서 후원이 절실하다. 3월 예산 11월 본선이다. 80명 하원과 40명 상원 중 총 120명중 한인인 단 한사람이다. 캘리포니아라는 막강한 주에 한인목소리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기도해주시고 물질

적 후원으로 격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구 목사(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 사회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회 협회장) 개회기도, 이병만 추진위원장(미주한인재단LA회장) 환영사,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학교 총장)의 격려사 및 축복기도,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전 회장), 그레이스송 3.1여성동지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어 김복임 회장(근우회), 김향로 장로(남가주교회 협 이사장), 잔김(효남향우회 이사장)이 최만규 회장(6.25동지회), 박영남 목사(미주광복회 회장)가 격려사 했으며 최석호 의원이 감사했다. 최석호 의원을 위한 기도를 선포한 목사가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가주하원의원 최석호 의원을 위한 기도와 후원의 밤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청소년수련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믿음의 굳게 서서' 강사 데이빗김 목사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제4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이 주최한 제 4회 청소년연합수련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고전16:13)'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마쳤다.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를 섬기고자, 자체적으로 여름 청소년수련회를 열기 힘든 교회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해 온 연합수련회는 청소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행사이면서, 남가주 교계 차세대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연합하는 행사, 모든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으며 데이빗김 목사(버지니아 호프웰 순복음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도전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 데이빗김 목사는 성경 속의 여러 인물 가운데 특별히 '이민자'라 할 수 있는 요셉과 다

니엘의 삶을 조명하며 이민교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했다. 이번 수련회는 예배 및 집회, 레크리에이션, 물놀이(Drop Zone Water Park), 조별 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LA 및 OC, 벤츨라카운티, 아리조나주, 워싱턴DC에서 7개 교단에 속한 19개 교회 청소년 115명이 참석했다. 참석학생들은 "이번 수련회에서 예배가 가장 좋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 "교회에서 늘 드리는 예배와 달리 수련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린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 "수련회 동안 소그룹이 협동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등의 피드백을 남겼다. (기사제공: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한미특수교육센터 파버월드와 MOU를 맺었다

### 한인사회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동실천 한미특수교육센터, 파버월드와 MOU 체결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와 파버월드(회장 명원식)가 지난 7월 31일 한미특수교육센터 LA사무소에서 '한인커뮤니티 발달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한 남가주 한인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의 로사장은 "두 기관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그룹 프로그램을 위해 상호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며 "파버월드 회원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장애학생들에게는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며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버월드의 명원식 회장은 "한미특수교육센터로부터 프로그램 동참에 대한 요구를 접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며 "우리 한인사회에도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인식을 차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고 학생들에게 봉사하면서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는 8월12일부터 11월 말까지 15주 동안 진행되는 한미특수교육센터의 가을학기 프로그램에는 현재 한미특수교육센터의 170명 학생의 절반인 85명의 발달장애학생들과 봉사활동 등록 및 심사, 그리고 교육을 받은 파버월드 회원 학생들간 '1대1 매칭'을 통해 한인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사랑 나누기'프로그램이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이 두 단체의 학생들은 농구, 특수체육, 음악(오케스트라), 그리고 댄스와 같은 다양한 프

로그램들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된다. 또한 수업시간도 오후에 열려 봉사자들의 개학 이후에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장 소장은 "프로그램 전후 발달장애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 및 자립성 증가는 물론 인지 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며 "봉사자들 역시 처음에 참여할때는 왜 이곳에서 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봉사자로 참여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뿌듯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국에서 열린 장애관련 행사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여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관심을 보였다"며 "한미교육센터의 발달장애 관련 프로그램이 파버월드와의 협력을 통해 남가주 한인사회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또는 선입견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 한인가정상담소 9월 위탁가정 교육실시 한국어 20시간 교육과정 개편, 오리엔테이션 필수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오는 9월 위탁아동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동지찾기'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이번 교육은 세리토스 지역(장소 추후 공지)에서 9월 7일(토), 14일(토), 21일(토), 총 3회, 20시간에 걸쳐 한국어로 진행되는 심폐소생과 응급처치를 제외한 모든 교육은 무료다. 교육기간동안 위탁아동을 이해하고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과 위탁가정이 되

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조건 및 정부지원, 필수지원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위탁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이 강사로 참석, 위탁가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위탁부모의 경험, 위탁자녀들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달한다. 단,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 교육 전에 수료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수료할 수 있다.

위탁가정이 되려면 25세 이상 성인으로 지문검사(Live Scan)를 통한 신원조치를 받아야 한다. 오리엔테이션과 20시간 교육과정을 마치면 소셜워커의 가정방문, 인터뷰 등을 거쳐 위탁부모가 될 수 있다. LA 카운티에는 평균 3만 5000명의 아이들이 친부모와 살 수 없어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중 아시아인은 680여명, 한국계는 60~1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측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famla.org 또는 김지나 소셜워커(213-235-4867), jinakim@kfamla.org 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 서부교계 게시판

### 광복74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음악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와 대한국민회 기념재단(이사장 권영신 장로)이 공동주최하는 광복74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음악회가 11일(주일) 오후 4시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는 소프라노 김은혜, 테너 이준실, 한아름합창단, 에버그린여성합창단, 남가주장로총창단이 출연한다. ▲문의: (909)677-0028

### 충현선교교회 설립34주년 기념부흥회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설립 34주년을 맞아 '변질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는 주제로 8일(목)부터 11일(주일)까지 부흥성회를 갖는다. 11일 주일오후 2시에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행11:19-30)는 주제로 제직수련회도 열린다. 강사는 필라안디옥교회 담임 호성기 목사. ▲문의: (818)549-9191

### LA매스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LA매스터 오케스트라(지휘 오정근) 정기연주회가 9일(금) 오후 8시 지퍼홀에서 '사인사색'이란 주제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2010년부터 저소득층 및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리빙스톤 CDC(Livingstone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의 사업과 활동을 돕기 위한 Benefit Concert로 특별히 세 명의 객원 지휘자인 장상근(LA 한인회합창단 지휘자), 조지현(YE Children's Choir지휘자), 손한나(LCRC 지휘자)도 출연한다. ▲문의: (626)327-1140

### 광복 제74주년 기념예배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회장 이후목 목사)가 주최하는 광복 제 74주년 기념예배 및 '이승만 대통령의 날' 결의문 선포식이 16일(금) 오후 7시30분 온누리선교교회(6441 Lincoln Ave, Buena Park, CA)에서 개최된다. ▲문의: (305)576-9001

### 효사랑 시니어대학 개강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도록 도우며 성경적 효운동을 펼치고 있는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니어대학이 오는 8월 6일(화) 오전 9시 가을학기 개강했다. 시니어 대학은 1주일에 2회 운영(매주 화, 목요일)되며, 오전 9시-정오까지 열린다. 등록비는 1인당 월 40달러, 점심이 제공되고 △힐링댄스 △찬양활동 △음악교실 △난타교실 △성경과노라마 △영어교실 △컴퓨터교실 △스마트폰 강의 △탁구교실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주소는 14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21. ▲문의: (562)569-1189 남승우 학장

### 이남이 여사 별세

연세과이어, 송실OB 전지휘자인 이영두 지휘자 부인 이남이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65세. 입관예배는 9일 오후 6시30분 시온연합감리교회(231 E Lomita Blvd, Carson, CA)에서 갖는다. ▲문의: (310)991-1013

### 울타리선교회 기금모금 콘서트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 기금모금 콘서트가 19일(월) 오후 8시 디즈니 홀에서 열린다. 금번 음악회는 울타리선교회에서 네 번째 준비한 콘서트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주제로 삼았다. ▲문의: (213)819-3300

### '뮤지컬 도산' 10일 오후6시 월셔이벨극장 무대예술인그룹 '시선' 기획

뮤지컬 도산이 오는 10일(토) 오후 6시 LA 월셔이벨극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100주년 기념 기획으로 지난 3월 3일 세계 초연을 했던 뮤지컬 '도산'이 8.15 광복절을 기념해 흥사단 미주위원회와 흥사단 LA가 주최 주관하고 무대예술인그룹 '시선'이 기획, 제작해 무대를 올린다. 뮤지컬 도산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제 치하 교육계몽과 대한 자주독립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그의 삶과 미국에서 동포들을 규합해 이끌어가던 행적들을 재조명했으며 그 시대에 안창호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 목숨을 바친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지난 3월 공연 이후 개인적 사정들로 인해 결원된 인원을 5월 오디션을 통해 영입, 업그레이드 된 무대와 연출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올려지게 된다. 시선 대표 클라라김 집사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선조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우리의 2, 3, 4세들에게 가르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교육시켜야 한다"며 "지금 이 세대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이 발달한 세대다. 뮤지컬 도산이 그런 세대에게 교육이 되도록 준비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공감할, 자녀세대에게는 교육이 될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티켓 문의는 핫딜 213-784-4628 hotdeal.koreadaily.com/카톡 아이디: 무대예술인그룹시선/213-500-5824 (정리: 박준호 기자)



## “명성교회 세습은 무효”

### 예장통합 재판국 재심 끝에 결정

명성교회 목회자 대물림(세습)이 재심 끝에 교단으로부터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재판국은 6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관한 서울 동

남노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으며 논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이 8대 7로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1년 만에 이번엔 정반대로 세습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해 9월 투표를 통해 849표 대 511표로 교단의 세습방지법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세습 인정 판결을 내린 이전 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새로 꾸린 재

판부가 10개월 넘게 숙의해 내린 결론이다. 강홍구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로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11시 열린 재판국회의는 13시간을 넘겨 자정이 갓 지나서야 문을 열고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 교단, 교회내 성폭력 피해자 돕기

### 기감선교국 양성평등위, 온라인 성폭력 상담센터 개설

주요 교단들이 온라인 성폭력 상담센터 개설을 비롯해 성폭력방지 특별법 발의,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 등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의는 지난 1일 온라인 성폭력 상담센터를 열고 기감 홈페이지(kmc.or.kr)에 ‘성폭력 상담 신고’ 코너를 개설했다. 기감은 이 코너를 통해 교단 산하 교회와 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신고를 받고 있다. 최소영 기감 양성평등위 총무는 4일 “온라인 상담센터를 열자마자 전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이

어지고 있다”며 “일단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전문 기관과 연계해 트라우마를 벗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은밀하게 벌어지는 교회 내 성폭력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피해자를 공교회 차원에서 돌볼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해 교회 성폭력을 근절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신고는 이메일(kmchotline@naver.com)로도 가능하며 상담은 양성평등 위원원 손명희 전 한국여성성전화 공동대표가 맡는다. 현재 기감 성폭력 상담센터는 기감 본부 차원의 지원을 받

지 못하는 형편이다. 관련 법이 없어서다. 양성평등위는 오는 10월 열리는 기감 입법의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양성평등위는 ‘감독회장 산하 성폭력 대책위원회 신설’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신설’안을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에 올렸다. 장개위는 이들 안건을 검토한 뒤 입법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도 최근 ‘교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안’을 만들었다. 예장통합 산하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갖고 지침안을 확정된 뒤 이를 총회 임원회에 전달했다. 임원회는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들의 회의 조직으로 정기총회 폐회 후엔 최고결의기구 역할을 한다. 지침안엔 성폭력대책특별위

를 조직한 뒤 이 위원회에 교회 성폭력 접수와 진상조사,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목사와 장로 등 교회 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사건 조사를 마칠 때까지 교회 내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지침도 포함했다. 이안이 통과되면 예장통합 산하 전국 교회는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예장합동 총회도 지난 5월 열린 목사·장로기도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교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교단 목회자가 벌인 ‘그루밍 성폭력’과 같은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교육을 마련했다. 예장합동은 지난 4월에도 서울과 대구 지역 목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 전기총, 10월 3일 ‘100만 구국기도회’ 추진

### 8월15일 전국 각 지역기도회선 ‘성평등’ 관련성명 발표

제2차 전국 17개 광역시도·228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임원회의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예수교하나님의성회 총회관에서

열렸다. 설교 말씀은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가 전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0만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8월 15일에는 전국 각 시군구에서 기도회를 열고 성(性)평등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이자 이 모임 운영위원장 임영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차 모임을 설명했다. 또 지역별 안건과 향후 방향, 대한평신도협회 전국조직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전국기독교총연합회’(전기총·대표회장 엄인형 목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 인공지능 시대, 창조주와 접촉할 때 창조력 발산

### ‘다음세대 콘퍼런스’, 부모협조와 변화 없이는 불가능

“다음세대가 살아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을 자녀들이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접촉한 인간만이 창조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차준혁 서울 새로운교회 부목사는 지난달 30일 청소년·청년 선교단체 스타이거코리아(

대표 이형로 목사)가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만리현교회에서 개최한 ‘다음세대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다음세대 위한 교회 사역’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차 목사는 “부모세대 협조와 변화 없이는 다음세대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차 목사는 1년 동안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3000시간이라는 통계를 언급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평균 50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부모가 가정에서 흘려보내는 하나님 이야기가 훨씬 영향력 있다는 방증이다. 그는 가정 교육은 ‘집밥’, 교회 교육은 ‘특식’에 비유했다. 음식점 및 컨벤션 건물을 빌려 예배드리는 새로운교회는 한홍 목사가 개척한 지 10년 된 교회로, 다음세대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4500여 성도 중 교회학교 학생과 청·장년부 성

도가 2000여명이다. 새로운교회의 다음세대 사역은 가정과 연계돼 있다. 가정예배와 영적제사장(가정)의 축복기도, 가족성경 읽기 등을 권장한다. 차 목사는 새로운교회의 3가지 운동인 ‘시간의 십일조’ ‘건강한 체력’ ‘사색의 힘’도 소개했다. 차 목사는 “아이들이 하루 30분씩 하나님께 머무르고 30분씩 운동함으로써 건강한 영혼과 체력을 기르게 하고 매달 ‘신앙의 영웅을 찾아서’라는 신앙 서적 독후감 쓰기를 통해 사색을 독려한다”고 말했다.

## “아픔과 상처, 용서 통해 치유 경험”

### 27년 역사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

1일 경기도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 내적치유세미나가 열리는 예배당에서 400여명의 참석자가 눈을 감고 주서택 내적치유사역연구원 이사장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였다. “어린 시절 고통의 상상을 떠올려 보세요. 상처와 아픔으로 웅크리고 있는 내가 보이니까. 그 앞에 계신 예수님께 절구하세요. ‘주님, 저는 누구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라고요.” 여기저기서 울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급기야 한 여성이 통곡했다.

성서적 내적치유세미나는 우리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있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지난 27년간 138회에 걸쳐 5만3900여명이 참석한 한국교회의 대표적 인장수(長壽) 세미나다. 세미나는 주 이사장과 김선화 박사 부부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2박3일간 내면에 숨어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발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질병치유까지 경험한다. 세미나에 두 번째 참석했다

는 박모(38·여)씨는 “지난 10년간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로 수면제와 정신과 약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상태였다”면서 “이유를 모르는 질병으로 고통스러웠는데, 내적치유세미나에 참석해 임신 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엄마와 자궁 속에서 떨었던 내 모습을 봤다”고 흐느꼈다. 박씨는 “질병의 원인을 찾고 파스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복용하던 모든 약을 끊었다”면서 “예수를 모른 채 정신과 약을 40년째 복용하고 있는 엄마도 분명 이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장승대(56) 안수집사도 “여름휴가를 포기하고 왔는데, 나도 몰랐던 아픔과 상처를 발견하고 용서를 통해 내면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성 순모임을 하는데 다들 상처가 깊고 크더라”면서 “세미나에서 대성통곡하는 가장의 모습을 봤는데 같은 교회 집사들을 꼭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 이사장은 “현대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내면의 상처와 아픔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손길, 성경적 내적치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천기총, 천안서 신천지 맞불 집회

### “거짓평화 속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천기총·회장 임종원 목사)가 주관한 ‘이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 연합 규탄 집회’가 4일 천안시 서북구 신천지천안교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천기총 소속 89개 교회와 성도 1250여명이 참석해 신천지 측 집회에 대항하는 맞불 집회로 개최됐다. 신천지는 천안터미널 앞에서 신도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천지와 천기총의 정당한 성경 공개토론을 촉구하는 권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천

기총 소속 교회에 두 번에 걸쳐 성경 공개토론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라 세 번째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한때 신천지 신도였다 빠져나온 지승수(27)씨와 현재 26세 딸이 신천지에 빠져 2년째 연락 두절이라는 이연우(54 여)씨도 참석했다. 지씨는 “2017년 봉사단체라고 속이고 접근한 신천지에 속아 1년 동안 그들의 거짓말에 시간을 빼앗겼다”면서 “자신들의 논리에만 빠져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신천지가 이제는 진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도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적으로만 보지 말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원하는 화해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자”고 제안했다. 이씨는 “신천지가 2년 넘게 딸의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듣게 해 단란했던 가정을 이산가족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사이비 이단 종교를 뿌리 뽑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나 대처하자”고 호소했다. 천기총 측과 집회 참가자들은 신천지천안교회를 바라보고 서서 “거짓 평화에 속아 신천지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다. 신천지천안교회는 앞서 지난 달 21일과 28일 천안 빛과소금의교회(유영권 목사) 등 천기총 소속 교회 12곳 앞에서 ‘성경 공개토론을 하자’며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신천지는 천기총에 “성경에 입각한 신앙 핵심 주제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서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천기총 측도 “신천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 속 11개 주제에 대해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답했다. 하지만 신천지 측에서 ‘성경 없이 토론 하자’는 추가 조건을 제시했고 천기총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개토론은 무산됐다.

## 원로칼럼

### 목회서신(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박중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첫째, 기죽지 마십시오. 설치거나 방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 크다고 교만하지 말고 교회 작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둘째, 생명을 거십시오. 목자가 양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목양 원리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이 예수 목양 원리입니다.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것이 목양철학이고 원리입니다.

셋째, 넘보지 마십시오. 내 양 떼를 버리고 건너편 양 무리를 넘보는 것은 목자의 진정성이 아닙니다. 양을 버리는 것도, 훔치는 것도 죄악입니다. 걸핏하면 조건 따라 이곳저곳을 넘보거나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도 그런 교인은 믿을 사람이 못 되고 목회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선을 지키십시오. 차선을 생명선이라 부릅니다.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형사고의 경우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 폐해는 크고 또 큼니다. 인간사나 목회도 선이 있습니다. 선을 지키면 무탈하지만 선을 범하거나 넘게 되면 뒤탈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금전관계, 인간관계, 이성관계, 대외관계 넘어선 안 될 선들이 있습니다. 지키는 게 만사에 유익합니다. 다섯째, 내 탓이라고 먼저 말하십시오. 목회, 대외활동, 내부관계 등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꼬이고 얽혀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갈 데까지 가보자며 끝까지 따지고 규명하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은 상처와 후유증이 큼니다. 그러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며 자존심을 꺾고 선수를 치면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힘들더라도 ‘내 탓이오’를 연습하고 실행에 옮겨 봅시다. 여섯째, 가정을 지키십시오. 교회목회에는 성공했지만 가정목회에 실패한 예들이 많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목회 파트너가 되고 뒤를 잇대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참 좋은 문어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 ‘아우내 장터’ 에서 다시 ‘나라사랑’ 외치다

### 동북아평화 외치는 청년들 구국릴레이기도 시작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동북아 평화를 외치는 청년들의 구국 릴레이 기도가 시작됐다. 유관순에 의해 ‘아우내 장터 만세 운동’이 시작된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다. 호서대 기독교학과는 ‘스톱 재팬!’(STOP JAPAN)을 구호로 한 릴레이 기도회를 1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기도회는 병천 유관순 열사 생가의 매봉교회에 이어 천안 독립기념관 광장, 천안 신부공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아산의 이순신 장군 열이 서려 있는 현충사에서 진행된다. 호서대 기독교학과 학생회와 연합신학전문대학원(연신원), 총동문회, 교목실, 신우회연합회, 대학교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다. 해외 디아스포라들도 기도의 불씨를 이어간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알바니교회를 시작으로 주님의교회, 페루 산타아나타교회,

캐나다 중부메루살렘교회, 러시아 온겨레교회, 인도네시아 은광교회, 필리핀 소망한인연합교회, 태국 매곡교회, 베트남 봉파우한인연합교회 등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연신원 출신 동문이 11개국 1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호서대는 오는 12일 학교 연구학과 및 기독교학과 학생들이 연합해 ‘독립 만세운동 퍼포먼스’를 연다.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 운동, 아우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학생들은 손글씨 기도문을 작성해 낭독하고 나라 사랑 포스트잇을 이용한 캠페인을 벌인다. 함께 한 시민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팔찌’를 전달한다. 함영해 기독교학과 학생회장은 “구국기도 행사를 통해 세계교회와 기독교 청년들의 더 큰 관심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부산 기독교평신도협 ‘대 일본 경제독립선언’

부산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구일(克日) 기도운동’이 접화했다. 대한기독교평신도협회(회장 정근 장로)는 5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온종합병영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 일본 경제독립선언’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대한기독교평신도협회 고문 권용수 목사와 김한규 김한술 장로 등 임원들이 참여했다. 협회는 선언서에서 “일본의 아베정부는 미국 등 우리 우방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함으로써 오랫동안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우방 대한민국에 대해 무역 규제를 빌미로 ‘경제 전쟁’을 선전포고했다”며 “재임 10여년 간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종군위안부 존재 사실과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부정하는 야만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1919년 3·1 운동 당시 일제에 대항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의 우리나라 기독교 목사 장로 전도사의 송고한 정신을 계승하려 한다”며 “1000만 기독교인들이 100년 전 기미 독립선언에 앞장섰던 역사를 되살려 오늘 일본 아베정부의 대한민국 경제전쟁 선포에 맞서 ‘대 일본 경제독립선언’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베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에 자행한 8·2 백색 국가 제외조치 즉각 철회’ ‘과거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사과 및 배상 조속한 실시’ ‘강한 일본을 빌미로 군사 대국화와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평화헌법 수호를 만천하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교토소 선교칼럼 (59)



**이영희 목사**  
교토소 교목, TPPM대표

### 한국에서의 선교

2010년에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재소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변화프로젝트를 시작하셨나 몰오시며 더 큰 비전을 나에게 심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무기수로 22년의 형을 마치고 석방이 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교토소 선교, 노숙자 선교, 이송자 선교를 사역하시는 이 본 목사님을 LA미주복음방송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이 본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프로젝트가 한국에서도 시작이 되었고 책들이 발행되어 한국 교도소와 노숙자들에게 배포가 시작되었다. 또 이 본 목사님이 쓰신 신앙간증 책 '회색벽에 쓴 독백, 22년 미국감옥 신앙수기'가 "무기수가 주의 종이 되기까지"라는 책으로 재편집되어 나의 책 '승리의 행진, 미국 교도소와 문서선교 회상록'과 함께 한국에서 출판이 되어서 배포가 되고 있다.

"무기수가 주의 종이 되기까지"라는 책의 내용은 이 본 목사님이 사기 결혼으로 받은 상처와 그것에 관련된 쟁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살인을 범하게 되었다. 그분은 무기

수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을 끝내기 위해 감옥에서 자살을 몇 번 시도했으나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소망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감동 깊은 신앙 간증이다.

그분의 신앙간증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더욱 실감나게 하는 강력한 글이다.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영적인 부흥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잊혀진 재소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책들이 그 간증이 되고 또한 이 본 목사님의 간증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그분의 글을 여기에 소개한다.

-교회에 들어가자 안에 있던 재소자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감옥 특유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였지만 이내 그들은 나를 환영하였다. 펠레시아노가 나서서 나를 열심히 소개했다. 악수를 나누고 어깨를 두들기고 포옹을 하면서 모두와 인사를 나눴다.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천 중에 동양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동양인 형제가 생겼다고 반가와 하였다.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형제 중에는 전도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재소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범죄 외에는 아는 것이 없던 존재

들이었다. 모두가 1급, 2급 살인 무기수이거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수형자들이었다. 200년, 300년 형을 받은 사람들도 흔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성경말씀이 살아있는 현장이었다. 그들은 예배 후 따로 모여 성경공부를 하였다. 성경공부가 끝나면 전도지를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 일반재소자들을 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샌킨턴 감옥이라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간쓰레기나 다름없는 흉악범들만 모인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펠레시아노는 전도회의 중 추첨하였는데 그가 나를 전도회에 소개시켜주며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 본 목사님이 경험했던 샌킨턴 감옥이라는 데는 무기수들이 절대로 살아서는 못 나가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본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었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프로젝트가 계속 성장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며 사랑을 바란다. 우리가 감옥을 직접 방문하지는 못해도 문서선교로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한권의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한국에서 출판하는 책들은 보통 3권을 엮어서 낸다. 한권에 3분이다. 그래서 한달에 10분씩만 선교비를 보내도 3권의 책을 교토소에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9권을 보내는 것과 같다.

나는 교토소와 문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서선교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개인적으로, 또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2005년부터 이 문서선교를 소개하느라고 이미 많은 단체와 교회를 방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역을 넓히라고 말씀하셨다. 교토소와 문서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신가를 500교회를 방문하여 신앙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계속 주님은 나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LA, 시애틀, 아리조나 방송국을 통해서도 교토소에 대한 신앙간증을 했다. 또 2013년에는 한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지도자훈련에도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교토소 선교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더 열어주셔서 LA에서, 시카고, 그리고 뉴욕에서 지도자 훈련 수련회와 집회 그리고 교토소선교 세미나를 인도했다. 주님의 은혜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찾았다고 하셨는데 나는 정말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지금까지 변화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yonghui.mcdonald@gmail.com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장기간 당뇨나 고혈압 앓을 때 위험

신장(콩팥)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찌꺼기를 걸러주는 기관으로서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대사과정에서 생긴 찌꺼기가 걸러지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서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독증(uremia)을 일으키게 된다. 요독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이요법과 함께 투석 등의 방법으로 피를 걸러주어야 한다. 대개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견되고 요독증을 일으키기까지는 수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예방 치료로 말기 신부전증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점을 운영하는 60대 초반의 남성 김 모 씨는 2주 전부터 몹시 피곤하고 눈 주위와 손발이 붓는 것을 느꼈다. 또 입맛이 없어졌으며 자주 속이 쓰리고 속이 메스꺼운 적이 많았다. 움직일 때 어지러운 증상도 최근 들어 부쩍 잦아졌다. 김 씨는 고혈압을 20년 전부터 앓아왔지만 열심히 치료하지 않았고 약물치로도 소홀히 했다.

검진상 수축기 혈압 170mmHg, 이완기 110mmHg로 높았고, 혈액검사상 혈색소는 10.9g/dL로 빈혈이 있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4.0mg/dL이고, 신장 기능이 20% 정도 남아 있었다. 초음파상에는 신장의 크기가 조금 작아져 있을 뿐 요로폐색과 같은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2년 전 혈액검사와 비교하면 신장 기능이 50% 이상 감소한 것이 발견되었다. 김 씨의 증상은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치료에 들어갔다.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은 오랫동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을 앓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그 외에도 신장 동맥의 협착이나 사구체신염,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고, CT 등을 찍을 때 사용하는 혈관조영제도 신부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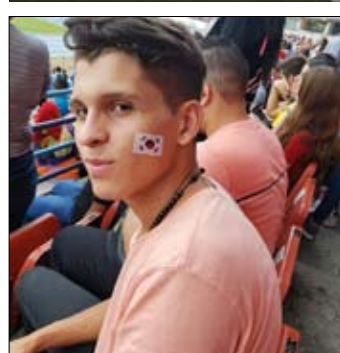
일단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견되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사용은 금하고 교정 가능한 인자가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돼서 요독 증상이 나타나면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데 저염식과 저칼륨식 식단으로 식사를 한다. 또 빈혈을 교정해주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하며, 하루 1인 섭취량은 900밀리그램 이하로 제한하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한다.

만성 신부전증은 미국뿐만 아니라 의료 보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문제다. 신장 투석으로 그동안 많은 환자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투석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생존율이 20% 내외로 높은 편이 아니다. 이는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신장질환 이외에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또 투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선교 보고

### "복음의 열기로 운하의 나라 파나마 후끈 달구다"

프라미스교회, 4/14윈도우 어린이선교



지난주간 미 동북부지역을 강타한 히트웨이프(Heat Wave)로 인하여 화씨 100도를 넘나드는 기온 속에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4/14 윈도우 선교'를 북으로는 알래스카, 남으로는 중미 파나마, 아시아는 한국과 방콕에 이르러 동시다발적 임체작전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6개 시즌을 진행해온 축구선교는 올해 '운하의 나라 파나마'에서 개최됐다. 4백만명 인구의 파나마 4개 거점 도시 다비드(7/10), 라 초레라(14), 콜론(17) 그리고 수도인 파나마시티(21)의 스타디움들에서 각각 진행됐다.

1차 경기는 인구 17만의 도시 다비드에서 개최됐는데, 이 도시는 뉴욕에서부터 외진 다비드까지 와서 어린이의 중요성을 외치며 자신들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려는 선교팀을 예사로 보고 지나치지 않았다. 자신들을 위해 자비량으로 내려와 선기는 모습을 본 다비드 시장은 감격하여 시 정부차원에서 발 벗고 뛰기 시작했다.

다비드 시의회는 7월 9일 오

전 10시,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담임목사와 리더십, 할렐루야 축구단을 시청 내 의회로 초청, 의회원들을 축복시킨 자리에서 7월 10일을 '프라미스 축구의 날'로 제정하고 선포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통과시키고 프라미스교회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리더십에게는 시민봉사를 수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사 후원의지를 표명했다.

시 의회는 경기를 위하여 선수 라커룸과 관중석을 9만불을 들여 보수하고 경기를 치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주교가 90%인 중남미 국가들 중 보기 드물게 개신교행사를 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처음 보는 드문 일이었다고 선교관계자는 전했다.

7월 10일, 3천2백석 경기장에는 천석의 보조자를 설치하고도 입추의 여지 없이 5천여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인 관중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안전관계 상 입장하지 못한 600여 관중들은 집으로 돌아가 케이블TV로 중계방송을 보았다. 이런 소문이 그리 넓지 않은 파나마 땅의 다른 축구경기 예정 도시들에 전해져 나머지 세

경기들도 모두 성황리에 마쳐질 수 있었다는 선교팀의 사후 평가다.

특히 수도인 파나마시티 웨스턴 호텔에 선교본부 설치한 프라미스교회는 7월 12일 파나마 시장이 주최한 기자회견 요청을 받고 갔다. 최근 파나마 정권이 교체 된 후, 얼마 전 파나마시티 시장도 교체되었는데 시장 초청으로 개최된 기자회견에 프라미스 선교팀과 남은 세 개 구단 구단주들을 초청하여 감사를 전하고 시장은 환영인사 중에 "할렐루야 축구단이 이번 뿐 아니라 매년 와서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동안 자신들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소외시켰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미래의 주인공들을 더 섬겨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 정책도 세우겠다"고 기자회견 석상에서 밝혔다.

이 내용은 파나마시티 일간신문들을 통하여 일제히 전국에 뿌려졌다. 이로 인하여 라 초레라(14일)에도 3천석 경기장에 5천명 이상, 콜론(17일)에도 비슷하게 인파가 몰렸으며, 마지막 파나마시티(21일)

스타디움은 2만7천석의 메머드급 스타디움에 무려 1만 6천명의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몰려왔다.

경기장 건립 후, 최근 프로 축구팀이 경기할 때 최대 관객이 8천명이 입장하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파나마시티 축구선교가 얼마나 큰 관심과 호응 속에서 진행됐는지 그 뜨거운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파나마시티 경기장에 여성 주지사가 마침 어린이날을 맞아 축사를 하여 의미를 더하였다.

우기인 중남미의 기상상황 속에도 네 경기 모두 쾌적한 열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으며, 특히 모든 경기는 FIFA 심판들이 나와 경기를 진행하였다. 그 중에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 주심이었던 잔피피(John Pitti)도 함께 경기를 진행하였

며 선교팀과 합창단이 서로 성숙한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파나마선교로 프라미스교회 장년 250명, 월드밀알 150명, 학생 70명, 총 470명이 게임에 따라 자비량으로 드나들며 파나마에서 3만명의 파나마 국민들에게 직접복음을 전하였으며, 메스컴을 포함하면 4백만의 파나마 전국민에게 할렐루야의 함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문을 전하고 선교팀 전체는 21일, 22일 각각 항공편 좌석에 몸을 맡기고 감격과 기쁨의 회고를 하며 뉴욕으로 돌아왔다.

지금 서울에서는 4/14 윈도우선교 일환인 '코리아 에클레시아'가 진행되고 있다. 영성훈련인 에클레시아는 영성과 은혜회복 운동이다. 지친 영혼들을 회복케 하고 일꾼으로 하여금 사명과 은사를 회복하게 하여 다시 사역으로 돌려보내는 영성훈련이다. 한국에서는 10회째 개최 중이며, 뉴욕에서는 80기 '뉴욕 에클레시아'(8/25-28)가 열리게 된다. 특히 태국에서는 '방콕 에클레시아'(7/29-8/1)가 진행됐고 연이어 4/14 윈도우선교의 일환인 브로드웨이급 뮤지컬 '히즈라이프'(His Life, 8/15-18)가 그동안 예수님의 주연을 맡았던 랜디브룩스 은퇴 후, 아담리처드와 호흡을 맞추며 세계 최대 쇼 필드인 방콕 'Central World' 내 극장에서 8회 공연을 통하여 '불교의 나라 태국'에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기사제공: 프라미스교회)



### 아메리카지역 현장의 구조변화와 중남미지역 선교의 새로운 모델 개발(7)



강성철 선교사 (아메리카 지역선교전략연구소)

#### B. 중남미 선교의 토착화 교회의 새로운 선교 모델

성경적 선교신학을 바탕으로 한 선교지도자 재충전교육

중남미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훈련부족으로 질적 저하 상태에 있다. 현재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개신교인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고 어떤 중미국가들은 20%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신교회가 사회에 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죄악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중남미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죄들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닷물 속에 소금 함량이 4% 밖에 되지 않아도 짠 맛을 내고 온갖 오물들이 들어와도 부패하지 않게 하는데 중남미의 기독교 인구가 거의 15-20%를 육박하고 있지만 짠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질적 성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토착화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적 선교신학을 바탕으로 한 선교지도자들 세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 교회를 섬길 때 진정한 토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에 GMS 브라질 신학대학, 아마존 마우에스강변성경대학, 아마존 쪄아리강변성경대학이 5년, 또는 6년 만에 각각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목사, 선교사, 주일학교 교장, 찬양인도자 등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집중으로 성경중심의 신학을 배우므로 재충전을 받아 사역지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립교회, 자치행정, 자립운영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되고 있다. 브라질 GMS 신학교를 졸업한 오스말 목사는 개척하면서 미용기술을 가진 마리아 시다를 평신도 선교사로 포르투갈로 파송하고 교회개척 후 첫 세례를 받은 마태우스 루카스 두 청년이 헌신하여 6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르헨티나 선교사훈련원에 보내어 선교사 훈련을 받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다. 산토아마로 오스말 목사는

오순절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고 비디오 촬영으로 생활을 하는 중 GMS 신학교 졸업식을 촬영하던 중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4년간 수업한 후 패러다임이 바뀌어 칼빈주의 신학 바탕 위에서 산토아마로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고 있다.

#### 정확한 선교정보와 전략적 선교

KWMA가 발표한 2018년 선교사 파송 수는 171개국 2만7993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GMS 파송 수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101개

#### 토착화는 행정, 전도, 교회구조, 수용자 문화바탕위에 복음 심기 파송선교사 정보 공유 행정시스템 갖추고 위키시 함께 기도해야

국 1415가정 254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아메리카 지역선교부는 135가정 231명이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써야 보석이 된다는 말의 의미처럼 GMS 파송선교사가 서로 소통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혼자 일하는 독립군은 행정이 필요 없다. 자기 혼자 사역하기에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 지금까지 중남미 선교는 대부분이 독립선교를 해왔다. 재정을 주고받고 한국을 방문할 때 입출국 신고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선교사가 보고하지 않으면 선교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반드시 선교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은 브라질 북쪽 보아비스타를 간적이 있다. 그곳에는 50년 이상 된 메바선교부, 노바스프리로선교부, 아사 쇼호호 항공선교부, 위클리선교부를 비롯한 많은 선교부들이 함께 사역을 공유하고 있었다. 파송하고 20년간 함께한 항공 정비사 바우타일 학개오 선교사부부를 방문하는 길이었다. 정비소에는 여러 선교부의 중소형 항공기들이 정비를 하고 있었다. 파송기관 목사가 왔다고 각 선교사부실을 돌

며 인사를 나누도록 소개하였다. 이들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멤버 케어를 비롯해 사적인 자녀들의 학교 통학까지 서로 돕고 있었다.

선교사 언어학교 선생출신인 학개오는 아침마다 아우테라 안에 있는 선교사들과 무전기로 통신을 통한 점호를 하고 있었다. 위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물품을 점검하고 선교사 건강을 체크하는 등 상황을 보고받고 각 선교부에 정보를 알리며 함께 기도하고 유무상통하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GMS 세계선교부가 선 해결해야 할 점은 정확한 선교정보와 거기에

따른 전략적 선교를 개발하여야 한다. 브라질 아마존은 우림지역으로 건기(5-10월)와 우기(11-4월)로 나누는데 우기에는 강물이 범람하여 동네는 물론 산이 뒤덮일 정도로 물바다가 된다.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역사적 사실이다. 모 선교사가 우기에 사진을 찍고 홍수에 피해를 입고 있는 아마존 돌기를 청원 총회 차원에서 모금을 한 적이 있다. 전국교회와 헌금했고 그 일이 사건화 되어 총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미약한 정보와 부실한 선교의 사례라 본다.

사역, 재정, 그리고 인사행정 그리고 선교대회를 비롯한 선교전략 정책을 세울 때 현장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선교현장에 둔 지역 대표와 지부장의 유대관계를 중요시 할 뿐 아니라 리더십을 갖춘 필드선교사를 반드시 역할과 권한을 주고 지원해야 한다. 선교재정을 후원하기에 우리가 뭐든지 결정하면 선교사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망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선교지 문화 이해부족과 현지인과 문화적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정은 결코 현지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선교 편지

#### 필리핀 민다나오섬

저희 가정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선교사 안식년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4년마다 한국에 안식년으로 한 달 반 동안 방문하는데 이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받고, 후원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보고를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국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우선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시간이 되면 다시 선교지로 돌아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보니 선교지에서도 쉽게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바쁜 일정 가운데 우선순위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 하고 선교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가 가장 기쁜 일입니다. 열악하고 외진 선교지에서 24년 넘게 사역하다보면 많이 지치고 몸이 약해지는데 늘 건강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서남단 잠보앙가 지역의 파우숙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할 때 늘 기도도 함께 동역해 주심에 감사사를 드립니다.

#### 2019년 새학기

2010년 새희망 학교를 처음 시작하였을 때 학생들이 40명이었는데 9년이 지난 2019년 새 학기에는 165명의 학생이 등록을 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학교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새 학기가



6월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한국에 안식년으로 갔을 때 예원교회 방 목사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악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쿨렐레 5개, 오카리나 6개, 실로폰 15개, 멜로디언 15개, 피리 10개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희망 학교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새로운 악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에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육청 사람들이 와서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악기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음악과 미술, 체육 과목이 '마패'라는

한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음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악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필리핀 초등학교, 고등학교 행사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춤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희망 학교는 3년 전부터 악기를 조금씩 가르쳐 와서 학교의 수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 캠벌리 여학생

안식년을 다녀오니 저희가 후원을 해오던 5학년 여자아이 캠벌리가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다.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3살이 많은 캠벌리는 모슬렘 여자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 캠벌리의 형편을 잘 알기에 3년 전부터 조금



이나마 후원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에 캠벌리가 공 선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방학동안 이모가 있는 바실란 섬에 방문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배에 참석 못해도 후원을 계속 해줄 수 있나고?" 공 선교사는 "물론이니 아무걱정 없이 다녀오라"고 말했지요. 한국에서 돌아와 보니 캠벌리의 이모가 캠벌리를 데리고 갔다고 말하면서 할머니께서 공선교사와 학교 선생들에게 "학교 관련된 서류를 내어 주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캠벌리가 돌아오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캠벌리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캠벌리의 이모가 도리(결혼 지참금)를 받고 캠벌리를 결혼시킨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많이 아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착한 아이였고 어려운 가정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여학생이었는데 지켜줄 사람이 옆에 없다니 이모가 데려간 것입니다. 모슬렘 여자 아이들의 실상은 늘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정운 선교사 ohgongtak@daum.net

The Concert in Celebration for the 74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Day of Korea

# 광복 74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음악회

조국의 광복 74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어려운 조국의 상황을 돌아보며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고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광복 74주년 기념예배 및 음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권영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한기형



한기형 목사 권영신 장로 최경환 목사 이경호 목사 노혜숙 이준실 김은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대한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시온성결교회 담임목사 한아름 합창단 지휘자 에버그린여성합창단 지휘자 Tenor Solo Soprano Solo



한아름 합창단 에버그린여성합창단 남가주 장로 중창단

2019. 8. 11 (주일) 오후 4시

### 시온성결교회

2149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최 :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남가주기독교교회 협의회



# 영어로 보는 성경 (29)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Daniel 3:17, 18

17) If we are thrown into the blazing furnace, the God we serve is able to save us from it, and he will rescue us from Your hand, O, king. 18) But even if he does not, we want you to know,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image of gold you have set up."

(NIV 1984)

### WORD & IDIOM

\* thrown: throw: (내던지다)의 과거분사 \* be thrown into ~: ~ 속으로 내던져지다. \* blazing: (불)타오르는 \* furnace: 용광로, 아궁이 \* be able to + V: ~ 할 수 있다 \* save A from B: A를 B에서 구하다 \* rescue: 구하다, 구조하다 \* even if ~: ~ 일지라도

### GRAMMAR

17) If we are thrown / into the blazing furnace, / 만약 우리가 던져진다고 해도 / 불타오르는 용광로 속으로 /

the God we serve / is able to save us / from it, /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 우리를 구하실 수 있으시다 / 거기로부터 /

and / he will rescue us / from Your hand, / O, king, 그러나 / 그는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 당신의 손으로부터 / 오 왕이여 →

오, 왕이여, 만약 우리가 불타오르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짐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수 있으시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 If we are thrown into ~: 우리(we)가 스스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the blazing furnace) 속으로 (we)가 던져짐을 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수동태구문이다. 이 문장만으로 보면 누구에 의해 던져짐을 당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15절 말씀에 언급된 것으로 여기서는 생략되었다. 한국어도 그렇지만 영어는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씀으로써 문장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것을 피한다. (the God we serve is able to save us from it)에서 마지막 (it)도 같은 이유이다. 여기서 (it)는 (the blazing furnace)를 가리킨다. 또한 같은 단어의 반복도 가끔씩 피한다. 위의 문장에서 (save)와 (rescue)는 미미하게 뉴앙스(nuance)만 다를 뿐 동의어다.

18) But / even if he does not, 그러나 비록 그가 하지 않는다 해도

we want you to know, / O, king, 우리는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 / 오, 왕이여,

that we will not serve / your gods 우리는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 당신의 신들(을)

or / worship / the image of gold / you have set up." ~도 경배(절)하다 그 금의 형상 당신이 만들어 놓은

⇒ 그러나 왕이여, 비록 그분께서 불타오르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이 만들어 놓은 금신 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 (But even if he does not.) 다음의 (we want) 시작하고 있는 문장은 5형식(S+V+O+C)으로 된 하나의 문장이다. (we want you to know ~)에서 목적어 (you)의 보어로서 (to+동사원형)이 쓰였다. 일반적으로 목적어는 주로 (을, 를)로 번역을 하지만, 이 경우처럼 목적어(you) 뒤에 보어 오는 경우는 뒤에 따라붙은 내용의 주체가 되는 주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을 해야 한다. 따라서 (we want you)에서의 (you)를 (당신을)이 아니라 (당신이)로 번역한다. \* (or)은 앞뒤의 부정문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도 아니고 ~도 아니다)라는 뜻을 갖는다.

### STUDY & THOUGH

■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느니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고백은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과 신앙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는 전이적인 결단의 산물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하시려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하지 않으신다하더라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 He is God of power who can deliver His people regardless of situations they face. Do you believe God has this power?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 월 여호와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더니(왕상15:15)

본문은 아사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사왕은 아버지 아비얌이 왕위에서 3년만에 물러나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41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오랫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서원한 것은 끝까지 구별해 갔습니다. "구별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그대로 갖기 위해 애를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주목할 것은 아버지의 뜻까지 구별해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 화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왕상15:16-19)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오직 말씀과 기도, 예배하는데 힘을 기울임으로써 당시 막강한 나라를 오직 기도로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왕의 신실함을 보고 아사왕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인생 말년(35년)부터 그가 전쟁을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함으로써 늙을 때 발에 병이 나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밝히는 책이 아니라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사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인간적 감정으로 아람사람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실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 수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왕상15:20-22)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평생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배하러가서 자주 남유다를 흠모하다가 결국 유다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남쪽으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북쪽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불리한 정세를 모면하기 위해 계속 남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유다를 치러와서 라마(‘높다’라는 뜻)를 건축해 아예 사람들의 왕래를 막아버

린 것입니다. 이때 아사왕이 화가 나서 북이스라엘을 박살낼 계획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한 것입니다. 형제끼리 자주 싸우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나쁜 사람들과 이익을 본다

## 목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왕상15:23-24)

아람왕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뇌물을 가져다 주니까 그 뇌물 받아먹고 한번은 북쪽을 도와 주고 한번은 남쪽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남쪽에 아사왕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북쪽을 막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막아주는 척 하면서 북쪽 땅을 끌고루 차지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면 당장은 좋은지 모르지만 항상 뒤끝이 안 좋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발에 병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역대하16:12).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결국 1년 후에 죽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대하16:9). 할렐루야!

## 금 그 아비의 길로 행하여(왕상15: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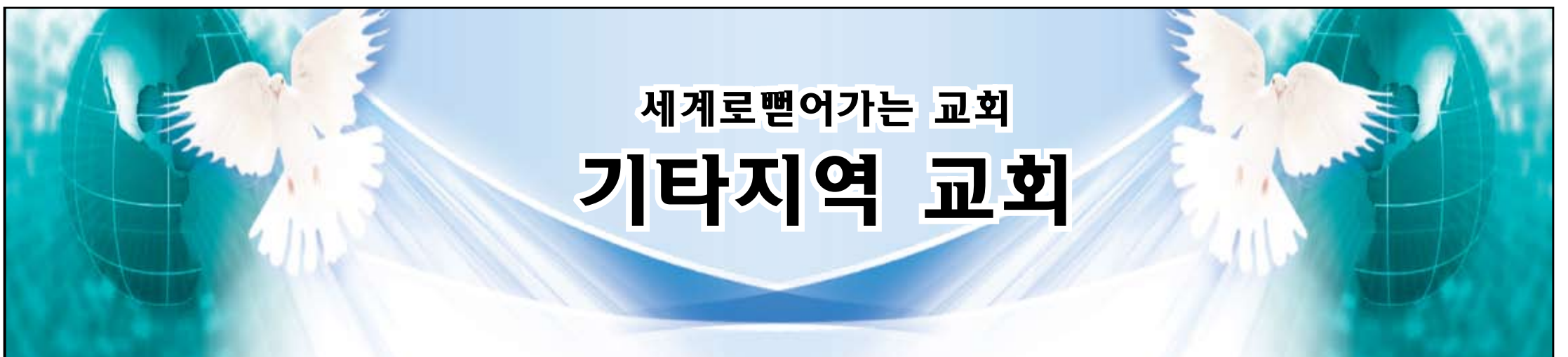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2대왕 나담과 3대왕 바아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담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온갖 못된 일을 다 저질렀는데 그 아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1)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기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길을 연구했습니다. 2) 여러 나쁜 친구들과 계획해서 결국 베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3)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기초를 닦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자손대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닦는 기초는 매우 중요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역지와 힘든 환경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며 경외하며 더욱 기초를 든든히 쌓을 때 반드시 다음세대에 더욱 귀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 토 바아사가 나담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왕상15:27-32)

성도는 때로 감감하고 때로 너무 더딘 것 같고 기도하며 애쓰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 때라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라도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를 것입니다(사50:10).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담왕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지 3년 만에 갑자기 바아사라는 사

람이 나타나 나담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담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집안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미리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  |  |  |  |   |  |
|--|--|--|--|---|--|
| <b>갈보리장로교회</b><br>담임목사: 조용철<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후 2:00<br>수요일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br>오전 6:00(토)<br>Tel: (702)579-7576, Fax: (702)257-9191<br>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 <b>몽고메리교회</b><br>담임목사: 최해근<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금요일기도회: 오후 8:00<br>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br>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br>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풍운<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영 아 배 배: 오전 10:00<br>금요일예배: 오후 8:00<br>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br>Tel: (215)945-1512, Fax: (215)945-2095<br>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 <b>벤엘교회</b><br>담임목사: 백신중<br>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br>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br>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br>EM예배: 오전 10:0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br>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br>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 <b>보스턴장로교회</b><br>담임목사: 장성철<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br>금요일찬양회: 오후 8:00<br>목회, 유배, 중노동부: (주)일 11:00, (금) 오후 8:00<br>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br>2 Main St. Hpkinton, MA 01748          | <b>살롯장로교회</b><br>담임목사: 나성균<br>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br>주일 2부예배: 새벽 6:00<br>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br>대위헌년회: 오후 1:0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영, 유, 유배: 오전 10:45<br>중, 노동부예배: 오전 10:45<br>Tel: (704)877-6642, (704)529-0900<br>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
|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br>담임목사: 박은일<br>주일 1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15<br>수요일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br>토요일: 오전 6:30<br>Tel: (206)579-0981, www.kppcseattle.org<br>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 <b>안디옥교회</b><br>담임목사: 강준수<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7:00<br>새벽예배: 오전 6:00(월-토)<br>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br>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 <b>알칸사 제자들교회</b><br>담임목사: 전남수<br>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br>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br>수요일예배: 오후 7:30<br>금요일기도회: 오후 8:00<br>새벽예배: 오전 6:00(월-토)<br>Tel: (501)920-9049, www.jejas.com<br>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 <b>앵커리지열린문교회</b><br>담임목사: 유재일<br>주일 1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영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2:00<br>수요일예배: 오후 7:00<br>Tel: (907)344-6446, Fax: (907)344-3182<br>3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 <b>엘파소열린문교회</b><br>담임목사: 유재일<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2:00<br>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br>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br>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 <b>영생장로교회</b><br>담임목사: 백은영<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2:00<br>주일 4부예배: 오후 2:0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금요일기도회: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br>Tel: (215)542-0288, Fax: (215)542-8037<br>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
| <b>킬린온누리교회</b><br>담임목사: 김성환<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br>금요일예배: 오후 8:00<br>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br>Tel: (254)535-1842(H), (254)501-4933(C)<br>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br>담임목사: 한세영<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br>주일 4부예배: 오후 8:00<br>금요일기도회: 오후 8:00<br>새벽예배: 오전 5:30(월-토)<br>Tel: (703)941-4447, www.mpcow.org<br>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 <b>주예수교회</b><br>담임목사: 배현찬<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4부예배: 오후 1:15<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토)<br>Tel: (804)560-7500, www.ijkc.org<br>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br>담임목사: 박장호<br>주일 영예배: 오전 8시<br>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br>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br>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br>수요일예배: 오후 7시<br>수요일기도회: 오전 5시 30분<br>(화-토)<br>Tel: (253)536-6675, www.tacomacr.org<br>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br>담임목사: 박장호<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영예배: 오전 11:00<br>청년예배: 오후 2:00<br>수요일예배: 오후 7:45<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br>Tel: (215)927-0630, www.kucc.org<br>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br>■ L.A.: Tel. (323)665-0009<br>■ N.Y.: Tel. (718)886-4400<br>Fax. (718)886-0074<br>   |



# 설립 50주년 희년 맞는 아르헨티나 제일교회를 찾아서 - ①희년 축제 고달픈 이민의 삶, 신앙공동체로 세웠다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로 꼽히며 땅 끝 마을이라 칭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반세기 전에 꿈을 안고 아르헨티나에 농업이민으로 첫 발을 디딘 한인들의 정착은 쉽지 않았다. 한국적 농업방식이 현지에서는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은 대도시로 나가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했고 농업이민으로 정착한 한인들은 극히 소수다.

이들은 나라를 떠난 외로움과 새로운 삶으로 인한 고단함을 달래며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으로 이민의 삶을 세웠다. 아르헨티나제일교회(담임 최광언 목사) 역시 이렇게 작은 불씨가 모여 시작됐다. 1969년 몇 명의 신앙동지들이 모여 시작된 제일교회가 어언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게 됐다.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2019년은 남다른 설렘으로 시작됐다. 희년의 축제를 준비하며 기쁨을 나누고 갖가지 행사를 준비했다. 기자는 현지를 방문하고 제일교회의 희년의 역사를 되짚으며 아울러 아르헨티나 한인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소개한다.

### 7월 7일 설립감사예배 및 장로는퇴식

설립기념 감사예배로 막을 올린 희년 축제. 화려함보다는 조촐하게 교회적인 예배로 드리며 "50년 전에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쓰임 받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힘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예배시간을 통해 그동안 헌신해온 배기일, 정일성 장로의 은퇴식을 갖고 그동안의 헌신을 감사하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 7월 14일 온 성도가 함께 한 전국찬양잔치

14일 주일에도 희년 축제로 이어졌다. 1부, 2부 예배를 감

사람으로 마친 성도들은 오후 3시부터 전국찬양대회를 시작했다. 행사는 예배와 전국 찬양대회로 구성됐다. 말씀을 듣고선 최광언 목사는 베드로 전서 1장 3-12절을 전하며 "거듭나게 하신 것을 찬송하고 영원한 참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자"고 강권했다. 이어 나명현 권사와 글로리아 자매의 사회로 시작된 찬양대회는 청년부와 고등부 가족팀과 기악부팀 등 총 13팀이 참여했다.

출전한 찬양팀은 각 팀의 개성과 달란트를 맘껏 발휘해 기쁨과 행복을 선사함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시상: 고등부 중창팀 △최우수상: 청년부 중창팀 △우수상: 기악팀 △장려상: 김환수 장로, 이주현 가정 △인기상: 전영인 현지인부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 희년행사의 또 하나의 빅 행사, 수련회

7/21-24일 제일교회 수양관에서 개최된 장년수련회는



장립 50주년 기념 전국 찬양대회를 마치고 출원자들이 기념촬영.

과 장년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찬양과 경배 팀의 찬양은 모인 성도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며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열정에 뜨거운 불을 지켰

### 7대 담임 최광언 목사 아르헨 최대교회로 부흥 시켜

연일 400여명이 참석한 대 집회로 진행됐다. 21일 본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마친 교인들은 준비된 대형버스와 각자의 승용차가 총동원된 가운데 베라자테gui에서 32킬로 쯤 떨어진 Berazategui에 세워진 수양관으로 이동했다.

수양관에 도착한 성도들은 질서정연하게 방배정이 끝나고 식당 봉사자들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 맛난 저녁이 준비됐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지만 한꺼번에 식사를 하기엔 태부족이라 2교대로 식사를 마친 후, 첫날 집회의 막이 올랐다.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시작된 수련회 강사는 한국 익산고현교회 최창훈 목사가 초청됐다.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시작된 유년부 어린이들

다. 또한 황금자리라 생각되는 앞좌석에는 이미 일찍 도착한 성도들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아마도 앞자리에 앉은 은혜를 받으리라는 거룩한 욕심이라...

첫날 김석주 장로의 기도와 청년부, 중국한족, 장로팀의 특별찬양에 이어 최창훈 목사가 단에 올라 '지금 은혜 받을 때'(고후6:1-2)란 제목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피력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은혜 받은 이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려울 때 들어 쓰시는 영웅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둘째 날 아침 '성령을 받으라'(요20:21-22), 저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고전3:16-17), 셋째 날 아침 '선한 청지기'(벧전4:9-10), 저녁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막9:21-29), 저녁 '내 안에 거하라'(요15:4-5)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시간마다 은혜를 나누었으며 참석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는 브니엘 성전 가득 울려 퍼졌다.

제일교회는 1992년 현지의



제일교회 수양관 전경

### 2020년 은퇴를 앞둔 최광언 담임목사

인/터/뷰

-지난 30년 사역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교회가 스무 해 되던 1989년에 7대 목사로 부임을 했지요. 그동안 30년의 세월동안 목회해 오면서 오늘의 외적, 선교적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정말로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피의 복음과 십자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기도의 장으로 인도했습니다.

### 후임과 성도들 한마음으로

이 기도의 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고 기도했더니 첫째부터 강한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임하고 만 1년 만에, 교회설립 21년이 되던 해에 선교의 장을 처음 열 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르헨티노를 위한 성전 7개를 짓게 하였고 케냐의 신학교와 중국 연길에 교회를 지었지요. 6년 전부터는 탄자니아에 선교 문을 열어주셔서 성전 13곳과 우물 22개, 직업 훈련소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른 것은 오직 기도 뿐이었습니다. 기도훈련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뤄갔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니 마치 밀려가듯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수양관 대지 10만평을 구입하고 1993년 착공에 들어가 현재의 수양관으로 완공했다. 본 수양관은 10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브니엘 성전(본당)과 200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온 예배실, 450명 수용이 가능한 속



-후임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후임자(김성엽 목사)도 기도의 훈련을 많이 받아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장로님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훈련 많이 받았으니 모두가 하나 되어 모든 행하는 선교적 일이나 교회 일에 의견이 갈라지지 않을 줄 압니다. 그 한 예로 후임

### 갑절의 사역 이루길 소망

자 선전에 온 교인이 합심해 마음이 모아져 93%의 지지로 정해졌지요. 새로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지금까지 나를 통해 이룬 것보다 갑절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면적 54mX43m, 약 2000평방미터 대지에 전체 5층으로 짓고 있는 성전이 골조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성전을 짓는 것은 후세를 위한 것입니다. 내 때에 다 완공은 못한 다해도 후임자가 아름답게 완성을 해서 후세를 위한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올바른 장로교신학대학도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계를 향해 나가는 후후이제일기독교학교에서 많은 일군들이 배출돼 세계를 향해 큰 역할을 감당하는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성자 기자)

어? 성경이 읽히지 않네!

생장점이 터지는

# 구약성경일독학교

이매실 대표의 '어? 성경이 읽히지 않네!'를 성경읽기 전문강사로부터 배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원하게 읽혀드립니다

### 개강 날짜 및 시간

- 2019년 9월 11일 ~ 12월 11일 (매주 수요일, 11월 27일 휴강)
- 수요일 오전반 9:30am~11:30am
- 수요일 저녁반 7pm~9:30pm

- 강의장소 : 하늘소망교회 (3416 W. 1st St. LA, CA 90004)
- 교재 : 성경책, 구약워크북/구약내비게이션(현장구입 가능)
- 등록비 : \$50

### 강사진

-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 김소연 전문강사
- 임다나 전문강사
- 정인주 전문강사

문의 : 김덕수 목사(213-500-2948, dock.kim@biola.edu)

